만남

2011.4

교회표어 : 따뜻한 가정, 훈훈한 교회

특집 | 수난과 부활 / 한경직 목사 11주기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 부활신앙의 의미와 회복

인터뷰 –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보낸 35년

숭실대학교에 개설된 한경직 강좌



통권 447

www.youngnak.net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이철신 담임목사, 월드비전 이사장 취임 예배를 마치고···

이철신 담임목사님이 지난 2월 23일(수) 오전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제4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관계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두 번째가 박종삼 월드비전 회장, 다섯 번째가 신임이사장 이철신 목사, 여섯 번째가 전임이사장 김선도 목사)

〈사진 : 원종석 집사, 관련기사 57쪽〉

만남

2011.4 통권 447

교회표어 : **따뜻한 가정, 훈훈한 교회** (갈 6:10)

이달의 말씀 | 말씀 묵상 수련회 | **이철신** • 2

특집 | 수난과 부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 **임장원** • 4

부활신앙의 의미와 회복 | **소기천** • 6

특집 | 한경직 목사 11주기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보낸 35년 | **이미경** • 9

숭실대학교에 개설된 한경직 강좌 | **김은섭** • 16

사회복지 선구자이신 한경직 목사님 | **최성민** • 18

이달의 기도 | 4월에는 4하게 하소서 • 15

특별기고 | 天災(천재)인가 人災(인재)인가 | **송덕규** • 20

연평도 포격사건과 연평도교회 | **이재규** • 22

영락 피플 | 솔리스트 박 미 자 교수 | **인 미** • 25

수필 | 그리스도인의 삶과 질서 | **장진호** • 28

목회자 칼럼 | 2011년 새학년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스케치 | **최정민** • 30

전도자 노트 | 나의 소중했던 시간들 | **이영옥** • 32

연재만화(105) | 사람을 믿지말라!! | **조위석** • 34

선교보고 | 해외선교의 핵 '골든트라이앵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다 | **최현수** • 36

하나님은 항상 BEST만 주시는 분 | **박지윤** • 38

자치단체 사역보고 | '21세기 다변화된 세계 속의 영락교회 선교전략' | **송재붕** • 42

선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전도회가 있었다 | **최인자** • 44

건강가이드 | 초음파와 건강검진 | **오영택** • 46

4월 목회력 • 47

신앙 간증 | "수술자국 볼 때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할 것" | **김경희** • 48

구역모임 교재 • 51

교회소식 • 55

데스크의 글 • 68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 교육
  - 선교
  - 성도의 교제
  -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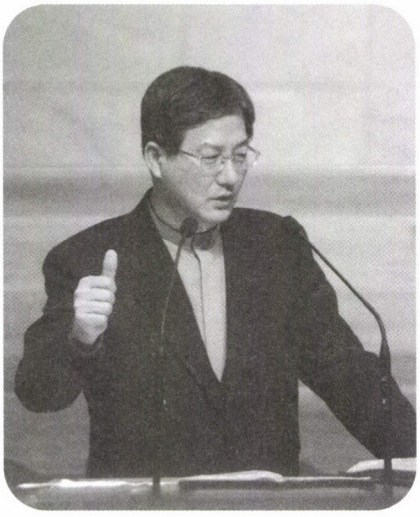
- **2011년 4월호 통권 447호**
- **발 행** 2011. 4. 1
- **발행인** 이 철 신
- **편집인** 정 문 식
-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00-032 서울 중구 저동2가 69번지
  전화 / (02)2280~0114(대)
  e-mail/hongbo@youngnak.net
  http://www.youngnak.net
- **인쇄처** 성원프린팅



지난 해 중등부 '부활주일 달걀 컨테스트' 작품

〈사진 : 박홍기 집사〉

말씀 묵상 수련회



이 철 신 담임목사

현대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영적훈련은 기독교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휴식과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피로와 탈진과 불안에 시달리다, 결국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성인병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긴장을 완화하고 여유와 평화를 준다는, 각종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훈련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상, 참선, 국선 같은 훈련, 단전호흡, 뇌 교육, 뇌파훈련, 기체조, 초월명상, TM, 요가 등 셀 수 없이 많은 훈련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훈련들은 힌두교나 불교 또는 민속종교에서 온 것들이고, 뉴에이지란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운동선수, 회사 경영자, 연예인들을 유혹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불면증과 비만 또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을 치료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훈련들에 별다른 생각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안식과 여유와 평화와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들은 비기독교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큰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뜨거운 기도회와 함께 침묵하며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많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산상기도회 등 많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도회들은 영적인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힘찬 찬송과 소리 높여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런 부흥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회심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부흥회는 기독교 교회에서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침묵하며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힘차게 찬송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침묵하며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건의 훈련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견고하고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갈 때에는 침묵하며 묵상으로 기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명상에서는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비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잡다한 생각과 탐욕을 버리고, 마음의 진공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긴장을 풀고, 여유와 휴식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훈련합니다.

말씀묵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묵상 수련회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역사나 문학의 지식, 또는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 자신을 내어 놓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역본으로 읽습니다. 특히 새롭게 번역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단어나 전체 개념 중에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을 찾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은혜가 되는 구절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암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단어나 개념을 묵상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들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 떡을 드리는 소년이 되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치유 받는 시각장애인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부모가 되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묵상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탐욕, 무질서한 생활, 예수님을 슬프게 한 일들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회개기도를 하기도 하고, 감사 기도를 하기도 하고, 다짐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 과정 중에 처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새깁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말씀묵상 수련회를 통해 신앙의 성숙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말씀묵상 수련회를 소규모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묵상 수련회는, 세상과 관계를 잠시 끊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고, 하나님 앞에만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멈추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휴식과 여유를 되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결단과 담대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남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임 장 원 목사
고양·파주교구, 예배위원회

사순절의 유래와 전통

사순절(四旬節)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 부활절 이전 기간을 거슬러 올라 역산하여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간의 기간을 지칭한다. 올해는 4월 24일(4월 넷째주일)이 부활절이므로 거슬러 셈을 해보면 3월 9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전통은 교회사에서 살펴볼 때 주후 325년에 개최된 니케아 공의회(Councils of Nicaea)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순절의 전통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닌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하던 전통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던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사순절의 유래에 맞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와 자기성찰의 전통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전해진다. 사순절 기간 중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육류와 어류의 섭취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다고 하니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졌고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으며,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관습으로 지켜지면서 저녁시간에도 간단한 식사는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이나 무용, 연애소설의 탐독과 같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호화로운 생활 등도 자제되었고 대신 자선활동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다고 전해진다.

절제와 회개, 자기성찰의 기회

어릴 적 교회에서의 사순절 기간을 추억해 보면 참으로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던

같다. 우리의 교회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교회적으로 무슨 잔치를 벌인다든지 축하행사 등을 절제 했으며, 특히 전교인이 힘을 모아서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를 힘써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순절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린 희생과 대속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절제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냄으로써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권할만한 신앙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성찰

자기성찰은 그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깊이 있게 보아야 한다.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2. 절제

두 번째로 권하는 것은 절제이다. 우리가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기보다는 지금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드려질 시간과 정성이 소홀해진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게 좋다는 뜻이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문화선교부 주최로 이른바 '미디어 금식'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펼친 적이 있다. 지금도 그때 나누어준 텔레비전을 덮는 용도의 그 보자기가 생각난다.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는 것이었다. 참으로 의미 있었고 보람 있었던 행사로 기억한다. 특히나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대중매체에 길들여지고 그것들에게 생각과 시간을 뺏긴 우리에게 그런 행사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3. 헌신

고대 교회의 전통에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거나 주의 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는 등의 헌신을 한다면 이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외에도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는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문화와 세속의 욕구 속에서 사순절을 보낸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속과 구별된 신자로서의 모습을 되찾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막연한 슬픔과 이유 없는 절제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 수용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고난과 헌신의 여정에 참여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실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울러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한 우리의 신앙도 한 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만남

부활신앙의 의미와 회복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그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셔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지만,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한다.



소 기 천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성서신학 교수
예수말씀연구소 소장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월간지인 『만남』지 원고청탁을 받고서 기도하면서 글을 준비하다보니, 먼저 아련한 추억으로 인해서 상념에 잠기게 된다.

그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의 구역 식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가깝게 지내던 모습이 떠오른다. 고난주간이 되면 독실한 신앙전통을 가진 성도들은 육식을 피하고,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하기도 한다.

어느 고난주간에 당시 서대문교구 북아현동의 구역장이시던 김도선 권사님께서 느닷없이 우리 집에 커다란 고기 뭉치를 신문지에 둘둘 싸서 들고 오셨다. 그 때는 집집마다 TV도 없었으니 냉장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하던 어려운 시기였다.

권사님께서 고난주간이라 하루 한 끼니씩 금식을 하시는 중이었는데, 더더욱 육식을 잡수실 수 없다면서 우리 집으로 몽땅 싸들고 오신 것이다.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 7남매를 키우시니 언제 고깃국을 실컷 먹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주간이지만 우리보고 먹으라고 당신 집에 들어온 큰 선물을 가져오셨다. 그 때 우리 집 아홉 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고마울 수가 또 있나'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배불리 먹던 고깃국 맛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지금 권사님께서는 천국에 가셔서 주님 품에 안식하고 계시지만, 이 글을 그 후손들이 보신 후에 필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사랑이 많으시던 그 권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정성껏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

사랑의 빚

권사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부활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려 하니, 부활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일깨워 주는 신앙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이웃이 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다.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신 것에 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축복을 안겨주신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유일무이의 사건이다.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은 사망의 권세이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인생을 사망의 고통으로 괴롭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사슬을 푸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원래의 인간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사랑의 빚인가!

부활신앙의 의미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준다. 그런데 흔히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혼불멸 사상과는 차이가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학파 중에 스토익 철학이 있다. 스토익 철학자들은 일찍부터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영혼만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육체를 하찮게 여겼다. 심지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대했다.

이러한 스토익 철학자들과 반대의 견해를 가진 고대 철학학파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소위 향락주의자들로서 육체를 탐닉하고 반대로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무질서하고 비도덕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영혼까지도 황폐해지는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훤하게 보이는 아레스의 언덕에서 행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 이런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 맞서서 당당하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의 교리를 천명한 것이다(행 17:16~3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영혼만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 동시에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지금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르침에 현혹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곧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상과 철학에서도 일찍이 말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불멸과 동시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행 17:18),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

가"(행 17:19)라고 웅성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영혼불멸과 육체의 부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그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셔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지만,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몸(헬라어 소마)과 육체(헬라어 싸륵스)는 서로 연관되면서도 차이가 난다. 부활 이전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썩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 이전의 육체를 입고 무덤을 나오셨지만, 아주 놀랍게도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셨다.

우리 인생도 죽으면 그 육체는 썩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반면에, 믿지 않던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신앙의 회복

이상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최후의 심판에까지 연결함으로써 심오한 기독교의 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진 성도이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도록 힘써야겠다.

이 글을 읽는 성도 중에 단 한 분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서 제외된 분이 없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당장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부활신앙은 잠자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세력들은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바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28)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만남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보낸 35년

- 강제옹 사찰 집사와 나눈 이야기 -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보냈던
생활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청렴결백이에요.
목사님은 평생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으시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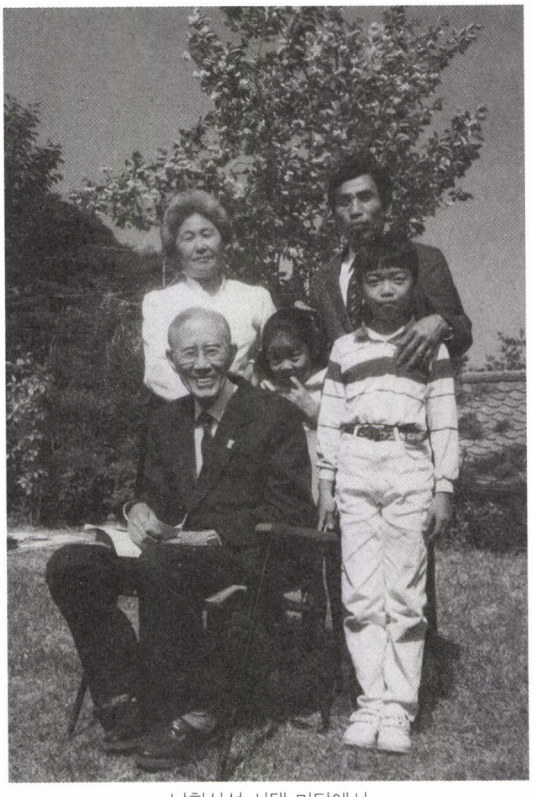
올해는 한경직 목사님의 추모 11주기이다. 그동안 본지는 국내외 종교계와 학계의 저명한 지도자를 통해 한 목사님에 관한 글을 많이 게재했고, 해마다 4월이 되면 여러 방면의 취재원을 발굴하고자 애쓴다. 그 성과로 국내의 유명한 목회자들 뿐 아니라, 국외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한 목사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었다.

이번 11주기에는 한 목사님의 사택에서 함께 지내며 오랜 세월동안 한결같이 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신 강제옹 집사(82)、박윤복 권사(75) 내외분을 모셨다. 두 성도님을 통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한 그 시절의 이야기와 목사님이 남기신 믿음의 교훈을 들어보았다.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지내게 되신 계기와 그 시간들에 대해 듣고 싶네요.

제 아버님 친구 분이 영락교회 집사이셨는데, 그분의 소개로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사찰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봉사관이 없었던 때라 교회 안 건물에 사무실과 사택이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건물이 헐리면서 사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집에서 출퇴근하게 되었고, 우리는 마땅한 집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어요. 목사님께서 그걸 아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에게 교회 옆 목사님 사택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지요. 그때 이후로 20년 동안 사택에서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 은퇴한 후에도 한경직 목사님의 소개로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지요. 그러다 한 3년 후쯤 남한산성에서 살고 계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밤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강 집사, 이제 몇 년 있으면 학교 은퇴하지?"



남한산성 사택 마당에서
(한 목사님, 목사님의 외증손주, 강제옹집사님 부부)

하고 물으셔서, "네, 1년 있으면 은퇴합니다"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럼 나하고 같이 있을 마음 없어?" 라고 물으셨어요. 마음은 감개무량했지만 그때 제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때라 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꼭 저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제가 일주일에 한번 집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어요. 그렇게 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한산성 사택에서 15년, 교회 사택에서 20년, 다 합해서 35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지냈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지요. 한 목사님은 저를 늘 신뢰해 주셨고, 저도 목사님을 위해 있는 힘껏 일했어요.

이 때를 회상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강집사님의 모습을 보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

오랫동안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지내셨으니 목사님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은 평소 어떤 분이셨나요?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보냈던 생활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목사님의 청렴결백함이에요. 목사님은 평생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으시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셨어요. 한 일화로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사실 때 제가 텃밭을 가꾸었지요. 목사님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남한산성에 오는 성도들에게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기억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살아 있는 생명은 어느 것 하나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 게 없으셨어요. 하다못해 흔한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셨지요. 예전에 예배당 앞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당시 관리부장이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해서 제가 오동나무 가지를 잘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살아 있는 나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저를 꾸중하셨지요.

30년이 넘게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검소하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목사님은 새벽 다섯 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한 목사님의 따님과 사위, 그리고 저를 포함해 사택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또 하루도 거르

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지요.

목사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었던 이유에 목사님의 한결같은 생활 습관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평소에 늘 소식하셨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이셨죠. 관리부장이 남한산성의 사택과 차고가 너무 낡아서 목사님께 보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한사코 마다하시며 그대로 지내셨어요. 저 역시 한 목사님과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갔지요. 제가 남한산성에서 지낼 때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물을 주고, 또 빗자루가 다 닳아서 못 쓰게 되면 나무를 덧대어 다시 쓰곤 했지요. 목사님도 저의 그런 점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시절 새벽마다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무척 그리워요. 요즘에도 남한산성에서 한 목사님과 보냈던 순간이 꿈에 나오곤 해요.

강 집사님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큰 축복이자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과의 일화 중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한경직 목사님은 댁에서나 교회에서나 강직하시면서도 한없이 너그러우셨어요. 교회에 안건이 있으면 당회의 모든 당회원이 찬성한 후에 일을 추진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셨고, 영락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사랑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의롭고 단호하셨는데, 제가 사찰로 봉사하던 당시 몇 사람에게 재정보증을 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걸 아시고, 마음이 여린 저에게 앞으로는 재정보증을 하지 말 것과 집안의 모든 재정은 부인인 박 권사에게 맡기라고 당부하셨지요.



교회 본관 입구에서
(김찬빈 사모님, 박윤복 권사님, 강집사의 막내아들)

김찬빈 사모님과의 추억도 많이 떠올라요. 사모님은 아무리 몸이 편찮으셔도 목사님이 외출하실 때면 직접 사모님의 치마로 구두를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또 외부에서 음식이 오면 사모님이 직접 드신 후 목사님께 드렸지요. 사모님의 마음 씀씀이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제 아이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셨고 소풍을 가거나 명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시거나 용돈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 딸이 그 시절을 회상하며 쓴 글을 보니, 케냐에서 선교하던 8년 동안 힘들고 괴로울 때 힘이 되어준 건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하더군요. 제 아이들은 목사님 내외분을 그렇게 불렀지요. 딸은 나약해질 때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

**목사님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남한산성에 오는 성도들에게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기억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살아 있는 생명은 어느 것 하나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 게 없으셨어요.**



강제옹 집사의 장남 결혼식
(한경직 목사님, 강제옹 집사님 부부, 강성관씨 부부)

다고 해요. 지금껏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오고 또 작은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자 한 목사님 내외분의 배려 덕분이에요.

강 집사님의 가정생활이 궁금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지금 제 나이가 여든 둘이고, 박 권사는 일흔 다섯인데, 육십 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 귀여운 손자들과 다복하게 살고 있죠. 감사하게도 자녀들 모두 잘 자라주어 딸은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케냐 선교사로 파송되어 8년간의 선교활동을 무사히 마친 후 지금은 짝을 만나 전도사의 아내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어요.

아들 역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모두가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는 게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우리 가족에게 영락교회는 삶의 터전이자,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죠. 이제껏 우리 부부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건강이 다할 때까지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많은 연세에도 무척 정정해 보이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건강합니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가야지요. 이상하게도 가만히 쉬고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봉사를 하면 아픔이 싹 가셔요. 하나님이 제게 일하는 소명과 축복을 주셨나 봐요.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히 생활하는 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케냐 선교지에서 강성미 선교사와 현지인들
(왼쪽에서 두 번째 강제옹 집사의 딸)

강 집사님이 좋아하는 성경말씀이나 즐겨 부르시는 찬송은 무엇인가요? 또 요즘 기도의 제목이 궁금하네요.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요. 찬송가는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를 즐겨 부르지요. 요즘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봉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자녀들과 손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소망이지요.

요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주로 한경직 목사님의 예전 설교를 듣거나 선배들이 전해주는 얘기로 한 목사님을 알아갑니다. 젊은이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전해주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이세요. 매일 매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셨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독서를 생활화하셨지요.

또 무엇보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웃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셨지요.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따뜻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목회자예요.

60년 가까이 영락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끝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특히 성도들이 '따뜻한 가정, 훈훈한 교회' 라는 올해 영락교회의 표어를 실천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경직 목사님의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또 따뜻함과 훈훈함은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영락교회는 큰 교회라서 서로 친하지 않으면 교인들끼리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믿음의 가족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 더 화목해 질 것 같네요.

인터뷰를 준비하며 강제옹 집사님의 딸인 강성미 사모가 쓴 수필을 읽게 되었다. 아이의 눈

김찬빈 사모님은 아무리 몸이 편찮으셔도
목사님이 외출하실 때면 직접 사모님의 치마로
구두를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또 외부에서 음식이 오면 사모님이 직접 드신 후 목사님께 드렸지요.

으로 본 한경직 목사님과 김찬빈 사모님은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친근하고 정이 넘치셨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한 목사님 내외분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강성미 사모가 살아갈 때 신앙의 버팀목이 된다고 하였다.


강제옹 집사 부부와 인터뷰 하는 이미경 실행위원

한경직 목사님을 꺼지지 않는 마음속 등불로 간직한 사람이 비단 강제옹 집사님의 가족 뿐만은 아닐 것이다. 신도가 선물한 잠바를 교회 근처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내어주신 일화나, 돌아가실 때 휠체어, 지팡이, 털모자, 이 세 가지 유품만 남기신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참된 본보기가 되어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비춰 주신다. 인터뷰 내내 강제옹 집사님이 들려주신 소박하고 거짓 없는 이야기를 통해 한 목사님의 강직한 성품과 선하신 인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초대교회의 반석이시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신,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하시고 경건하게 생활하셨고, 약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사랑하신 목회자이셨다.

비록 지금 한경직 목사님의 몸은 떠나가셨지만 언제나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기억이 생생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억은 값으로도 매길 수 없고, 그 어떤 단위로도 측량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이며, 이 유산을 이어가는 게 우리들의 소명일 것이다. 만남

〈취재 및 인터뷰〉
이 미 경 집사
홍보출판부 실행위원



4월에는 4하게 하소서

주님!
4월에는 '사'(謝: 사례할 사)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감사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웃과 가족들이 그저 있어주는 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만으로도,
바로 내가 나 됨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렇게, 범사에 '사' 하게 하소서

주님!
4월에는 사(赦:용서할 사)하게 하소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용서로 비우는 자 되게 하소서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허상을 풀어버리며, 진정으로 자유케되는…
그렇게, 나와 남을 '사' 하게 하소서

주님!
4월에는 '사'(思:생각할 사)하게 하소서.
생명이 담긴 생각으로 부활을 맛보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늘의 생각으로 땅의 생각을 덮으며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부끄럼없는 '사' 하게 하소서.

주님!
4월에는 사(社:모일 사)하게 하소서.
홀로를 넘어 함께를 눈빛으로 나누며 외로움을 녹이는 자 되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깊어지는 사랑으로, 순진하게 피어나는 꽃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힘써 '사'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四)'가 어우러져 사랑으로 살아내는 4월 되게 하소서

숭실대학교에 개설된 한경직 강좌

이 수업은 우선, 비기독교인이 대다수인 수강생들의 현실과 한경직 목사님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다음으로 예수를 닮고자 애쓴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사상, 그리고 사역을 연구하여 그 지도력의 핵심을 깨닫고자 한다.



김 은 섭 목사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담당

숭실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으로서 한경직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이다. 한목사님은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폐교된 것을 애통해하시며, 남한에 내려왔을 때 이를 영락교회에서 재건하였다. 한목사님은 초대학장으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쓰셨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 추모 10주기를 맞아 숭실대학교에서 지난 학기부터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연구목사를 강사로 한 한경직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경직 리더십'으로 진행되는 이 교양과목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3시간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오늘의 한국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종교이며,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이 만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그 테두리 안에서 배출된 인물의 지도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해방이후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도력을 발휘한 독보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이제 오늘의 젊은 영혼들에게 기독교와 한경직 목사님을 알림으로 장차 선배들의 뒤를 이어 이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나갈 도량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수업은 우선, 비기독교인이 대다수인 수강생들의 현실과 한경직 목사님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다음으로 예수를 닮고자 애쓴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사상, 그리고 사역을 연구하여 그 지도력의 핵심을 깨닫고자 한다. 끝으로 오늘

의 시대에 청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요청되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며 실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차별 강의 내용은 인사 및 과목소개, 기독교의 핵심메시지, 기독교의 핵심인물과 그의 사역, 기독교의 핵심진리와 조직체계, 기독교의 역사인식,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가 인류사회에 끼친 최대공헌, 한경직 연구서설, 한경직의 목회사상과 사역, 한경직의 교육사상과 사역, 한경직의 봉사사상과 사역, 한경직의 애국사상과 사역, 한경직의 영성과 지도력, 한경직과 한국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구술자서전인 『나의 감사』를 읽고 그 느낀 점을 쓰는 보고서와 기말시험이 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의 모든 교단이 존경하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애국자이고,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유일한 종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서조차 잊혀져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숭실대학교에서 강좌가 개설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모쪼록 이것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어 앞으로 한경직 석좌교수제가 설치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2011년 학원선교 세미나' 안내

◇ 주 제 : 학원선교를 위한 다양한 선교전략

◇ 목 적 : 교회, 학교, 선교기관의 다양한 학원선교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학원선교 모델을 수립한다.

◇ 일 시 : 2011년 4월 16일(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장 소 : 50주년기념관 503호

◇ 참가대상 : 학원선교 교역자 및 봉사자, 기독교사 및 학부모

◇ 강의주제 및 강사 :

1. 기독 C.A. 운영을 위한 교재개발 : 김경숙 목사(넥타선교회)
2. 청소년사역 멘토링 : 김용재 목사(다음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
3. 청소년 전도(Xee) 효력 : 이창호 목사(국제 전도폭발 한국본부 총무)
4. 청소년 교리교육 및 영상자료 활용법: 박학규 목사(청소년 제자선교회)

◇ 문의 및 접수 : '영락교회 선교부 학원선교팀'

* 4월 8일(금)까지 교회 홈페이지(www.youngnak.net) | 전화 010-6265-8556 (사전접수)
* 사전 접수하신 분에게는 기독C.A. 자료집과 영상CD를 제공합니다.
* 회비 무료, 간단한 점심과 다과도 제공합니다.

사회복지 선구자이신 한경직 목사님



최 성 민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고등부 교사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는 12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적인 성장을 가져 왔고, 세계 2위의 선교대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개 교회주의와 성장제일주의, 진보와 보수와의 불협화음, 날로 화합하기보다는 갈라지고, 쪼개지는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발전이 급속히 둔화되었습니다.

2004년에 한미준과 한국갤럽 리서치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에 따르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성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경우 주로 '양적 팽창, 외형에 치우친다' (25.5%), '교파가 너무 많다/단합이 안 된다' (24.9%)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비개신교인의 경우 '양적 팽창, 외형에 치우친다' (25.3%),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이다' (20.9%)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1]

한경직 목사의 사회복지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교회의 대 사회적 역할인 사회복지의 역할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회복지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복음 전파의 본질로서가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제활동이나 자선활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사회복지가 복음 전파의 수단이 아닌 본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복음실천의 본질적 사명과 중심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앙적 고백과 성찰에서 한국 교계에서 처음으로 2005년에 한국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2]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회봉사할 것인지, 교회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교회가 연합하여 어떻게 지역사회를 전문적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한 실천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는 장(場)이 되었습니다.

각주)

1) 한미준 · 한국갤럽,『한국교회 미래 리포트』(서울: 두란노서원, 2005), p.262.

2) "2005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KCSW)가 공동으로 2005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영락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인원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역사적인 대회였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07), p.3. 참조)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일찍이 신의주에서 고아와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복합시설인 보린원을 설립하셨고, 한국전쟁 중에 월드비전을 창설케하는 등 기독교사회복지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1957년 10월에 기독교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영락정(현 영락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기독교사회복지 활동의 전문화를 추진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기독교사회복지적인 복음실천의 열정은 영락사회복지재단[3]으로 재탄생되어져 아동, 모자,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고, 체계적, 효율적,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복지 대상자(클라이언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회복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봉사를 몸소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사회를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의 화두는 '기독교사회복지'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들은 10여 년 전부터 교회 안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 기관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과 돌봄,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에 머무는 소극적 목회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형편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주고 위로해 줌으로써, 복음 전파와 사회복지(사회봉사)를 병행함으로써 적극적 목회로의 기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독교사회복지는 21세기 한국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이미 한경직 목사님께서 60여 년 전에 말없이 행했던 사회복지활동들이 기독교사회복지의 푯대와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남

3) "영락교회 사회복지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일찍이(1957)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교회사회복지 활동의 전문화를 추진한 것이다. 육아시설인 영락보린원(1939), 한국 최초의 모자시설 영락모자원(1952), 영락경로원(1954), 합실어린이집(1981), 영락어린이집(1990),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1992), 영락요양원(1993), 뇌성마비 중증 장애 아동시설 영락애니아의 집(1994), 청소년 그룹홈 영락의 집(2003),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2005)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에는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김성이 外,『교회사회복지의 철학과 방법』(서울: 나눔의 집, 2005), pp.126-127. 참조)

천재(天災)인가 인재(人災)인가



송 덕 규 목사
옥계교회 담임목사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

구제역으로 인해 지금 우리의 농촌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계속되는 방역활동에 지쳐가고 있고 주민들의 갈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서로 간에 왕래가 차단되고 이웃끼리도 소통이 끊어지면서 서로를 경계하게 되므로 한마디로 마을 전체가 초상집과도 같은 분위기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옥계교회가 위치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은 '횡성 한우' 라는 브랜드로 한우 사육을 하고 있는 곳이라 구제역에 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원면 담당자에 의하면 22곳의 축산농가에서 살처분이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우선 살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우리 지역의 첫 번째 살처분 축산 농가는 암소만 기르는, 송아지를 생산해내는 가축농이다.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축 수정사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을 당하였다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결과가 나와 보니 음성으로 판명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지역 내 두 군데의 축산농가에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축들을 살처분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다. 축산농가와 행정당국과의 불신이 축산농가들을 또 한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구제역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만큼, 행정당국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평상시에 구제역에 대한 교육과 예방을 진행하고 축사의 소독과 청결한 사육을 장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생산적인 측면에서만 노력을 했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면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사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대개가 공장식 · 밀식 사육방식을 채택하면서 분뇨처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되었는데도 행정당국은 그저 손을 놓고 있다가 당한 인재이다. 사료를 싣고 다니는 차량과 사육장소의 청결문제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인재를 불러왔다.

살처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높다. 그 이유는 예방 접종을 조기에 접종하고 구제역에 걸린 소 · 돼지만 살처분 했어야 되는데 축산농가별로 한 마리만 구제역에 걸려도 무조건 전체를 살처분한 것이 농민들에게는 큰 불만이다.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한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위로가 되는 형편이다. 행정당국에서 충분하게 현재 시가를 고려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큰 불평이 없다.

인근 주민들 식수문제로 비상

그동안 구제역 방역과 살처분 등으로 시달리던 횡성군은 이제 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관내 127개소에 이르는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으로 인해 지하수 및 하천 오염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매몰지 내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횡성군 관내 구제역 매몰지 127개소 중 1차로 75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과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및 전기전도도 등에서 특이상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와 돼지 등의 가축 살처분 매몰지 대다수가 경사지와 하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및 인근 하천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 관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매몰지 127개소 인근 주민 5,000가구 1만2000여 명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하다며, 이들 지역주민들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국비 453억원을 요청했지만 현재 90억원만을 확보한 상태이다.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식수문제 해결과 매몰지의 완벽한 사후 관리를 위해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매몰지 관리 담당자를 속히 지정 배치한 후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수시 예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매몰지 내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 파동으로 지역 육류 취급 업소들은 직격탄 맞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횡성 한우의 명성으로 횡성 지역에는 한우 취급 업소가 120여 곳이고 또한 일반 음식점까지 합하면 600여개 업소에서 한우와 육류를 취급하는데 구제역으로 지역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식당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제역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그나마 가게 문을 열어봐도 육류 공급이 어려워 장사는 불구하고 점포 임대료도 못 낼 형편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횡성 지역에서 경영난으로 음식점 47개소가 문을 닫거나 제3자에게 점포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택시운전사들 또한 울상이다. 구제역 때문에 지역마다 도로가 통제되다 보니 택시영업이 어려워져 굶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택시기사들도 피해자이니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의 책임과 역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이 시대에 자행된 무분별한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보존법칙이 훼손되었음을 반성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상처 입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섬김과 위로의 사역을 우리 교회들은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이 바로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고민하여야 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만남

연평도 포격사건과 연평도교회



이 재 규 은퇴장로
서초교구, 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

북한은 천안함 격침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만인 작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조용한 어촌마을 연평도를 향해 170발의 포탄을 무차별 발사하여 해병대원 전사자 2명, 민간인 사망자 2명을 비롯한 10여명의 중 · 경상자와 민가 여러 채에 큰 피해를 주었다.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케 한 북한의 도발은 휴전이후 가장 큰 공격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도발이다.

포격도발의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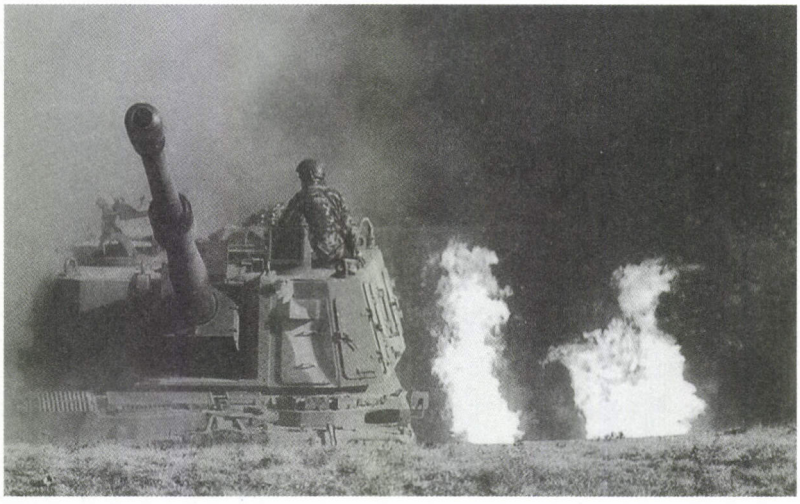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 먼저 북한의 3대 세습을 위한 대내적 환경조성으로 북한 주민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협상 분위기를 유도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 목적달성을 위한 의도에도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5개 도서의 중요성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무력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53년 6 · 25전쟁 정전협정 당시 지상의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북측과 합의된 반면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전쟁 중 북한 해 · 공군의 전력이 전멸된 상태로 해상권과 제공권을 우리 측이 완전히 점유하였던 입장이었기에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던 가운데 일방적으로 1953년 8월 30일 당시 UN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W,Clark) 대장 이름으로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협정 당시 우리가 점령하고 있던 북한 서해의 여러 섬을 북한에 양보해주고 상호불가침을 통한 무력충돌 예방을 위해 설정된 해상 군사분계선이 바로 NLL이다.

휴전 당시만 해도 서해 5개 도서는 별 볼일 없는 섬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우리에게는 북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불침 항모로서, 또한 북측에게는 눈에 가시이자 턱밑의 비수가 된 전략도서로 변모 되어 남측과 북측 모두에게 군사전략상 핵심적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지난 1972년까지 북한은 이 NLL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973년 10월에 이르자 NLL를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소위 '서해사태'를 유발했으며, 이 문제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하여 쌍방 간에 관할구역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다시 태도를 바꾸어 북쪽 영토로부터 12마일 구역은 자기들의 영토라고 일방적으로 선을 설정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이 NLL을 잃게 되면 백령도 · 연평도의 중간해역과 하늘에 대한 제공권을 상실하게 되고 백령도를 비롯한 주변 도서지역이 완전 고립될 뿐 아니라, 나아가 서해상 교역로의 안전보장 및 군사작전 수행에 큰 제한을 받게 되어 일단 유사시에 수도권 서(西)측방 방어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다.



사건 당일인 2010년 11월 23일 오후 해병 연평부대 제7중대의 모습

연평도교회

현재 연평도에는 민간인 교회인 연평장로교회와 군인교회인 연평해병대교회,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 선교사들이 지어준 40평 낡은 목조건물 예배당 하나뿐이었고 주일에는 군인들이 보초를 세우고 2부와 3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렸다.

1975년 당시에 연평도 부대장 정인철 대령(전 영락교회 협동장로)와 해군 군목 이명종 중위가 부임하면서 군복음화에 힘을 기울였고 1975년 6월 13일(금)에 무려 900명에 달하는 장병들에게 집단 세례식을 거행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집례자로 당시 우리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박조준 목사를 비롯해서 박석규 목사 (총회 군선교부장) 이광선 목사(신일교회 담임목사) 등 여러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초청하여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세례식 집례를 위해서 당시 연평도를 방문한 일행들은 세례식 다음날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 육지로 돌아가는 뱃길이 막혀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장 다가오는 주일 영락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를 해야 할 박조준 목사를 비롯해서 세례식에 참석했던 여러 교역자들에게 비상이 걸린 셈이었다. 해군 측에 특별함정 또는 헬기를 요청 해보았으나 기상악화로 그마저도 지원이 불가능해 하는 수 없이 바람이 잦아든 16일(월)까지 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않게 토요일과 주일을 연평도에 머무르게 된 목회자들은 군인들과 도서주민들을 위하여 양일간 하루 두 차례씩 계획에도 없던 명망 있는 강사들을 모신 훌륭한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집회를 통하여 많은 군인들과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기회가 되었다.

당시 낡고 좁은 오래된 예배당이었지만 1부예

배는 민간인들이, 2부와 3부예배는 군인들이 차고 넘쳐 예배당 밖에까지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 목회자들은 교회를 확대 건축 할 필요성을 느끼고 즉석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위원장에 영락교회 이만섭 장로(전도부장), 부위원장에는 정인철 대령(연평도 주둔부대장), 건축후원회장에 박조준 목사를 추대하였다.

처음에는 신축할 군인교회의 면적을 80평으로 했으나 군인들과 민간인들 모두를 수용할 목적으로 120평으로 확장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다음해인 1976년 1월 26일(월) 교회명을 '연평필승교회' 로 이름하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연평도는 육지와는 멀리 떨어진 섬이기에 육지로부터 건축자재를 나르는 일이 큰 난제였으나 감사하게도 해군에서 모든 건축자재 운반에 필요한 해군함정을 흔쾌히 지원해주어 공사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으며, 이후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연평도를 직접 방문하여 하기 봉사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오랜 시일이 지나 연평부대에는 군인전용 교회가 부대 안에 설립 되었고 우리 교회가 건축 지원해준 예배당은 오늘날 연평장로교회로 섬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교우 여러분들이 TV 보도를 통하여 파손을 입은 연평장로교회(민간인 교회)의 모습을 보셨겠지만 군부대 안에 있는 연평해병대교회도 포격으로 일부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민간인 교회 수리를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가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했고 군인교회에는 군선교연합회가 도움을 주었다. 다행한 것은 연평도 해병대 군인교회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새로이 건축되어진다는 소식을 현지 방문 시 접하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맺는 말

연평도 포격사건이 없었다면 정부와 군수뇌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북 도서의 중요성과 그 치명적인 노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 반문해 본다. 다행히도 포격 시간이 낮 시간이었던 탓에 많은 주민들이 집을 비우고 생업터전으로 나가있었으므로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섬지역은 포사격 거리 밖으로 도망칠 수도 없고, 산재한 민가들을 땅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도로 강화된 전력으로 대응을 하는 길 밖에 없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은 후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이 고조된 것이 큰 힘이 되며, 한때 현재의 도서 부대 병력을 감축하려던 계획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 수정하여 병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머지않아 합동군 작전개념하에 '서북도서방어 사령부' 를 해병대 관할하에 창설함으로 서부도서 방위를 튼튼하게 대비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한편 서해 5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하루 속히 안심하고 각자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도서 지역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으로서 늘 깨어 경성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예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드린다. 만남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여자주역상 수상자

솔리스트 박 미 자 교수

"재능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

3월 3일 무릎꿇은 국가조찬기도회! 찬양 주역!

지난 3월 3일 코엑스에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

"기도하는 대통령의 무릎꿇은 모습"으로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구국을 향한 그 뜨거운 현장의 자리에 잠시 후 하늘을 향한 맑은 가락이 공간을 메우며 은혜롭게 울려 퍼졌다. 주인공은 이화여대 성악과 박미자 교수.

"옳은 길 행하라 의의 길을… ♬"

처음 국가 조찬기도회 무대에 서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던 것도 잠시, 박교수는 이내 망설였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영광스런 큰 자리이기는 했지만 단 한곡으로 부르는 지정곡이 성악가로서는 역량을 거의 표현되기 힘든 행진곡풍의 찬양이었기 때문이다. 잠시후 명분과 음악가로서 기로에서 망설이게 된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결정을 내린다.

"노래 실력을 내세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그 분의 자존심,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자. 그리고 감사로 기쁘게 서자!"

그렇게 명확한 결정이후 박교수는 그 자리에 철저히 순종했다. 그 자리에 주인이신 하나님, 그 무대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그 분이 주신 목소리로, 그 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후 그 자리는 국가조찬기도회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역사 속 화제의 무대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재능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

박미자 교수는 작년 말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상 시상식에서 여자주역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재능을 보였던 박미자 교수. 7살 때 지금은 작고 하신 박춘석 선생님의 권유로 〈어머님 생각〉 〈산제비〉 등이 수록된 음반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여자주역상을 받고 있는 박미자 교수

을 출반하게 된다. 그후 선화예고와 이화여대를 거쳐 이화여대 성악과 교수로 활동중이다.

현재 영락교회 찬양대에서 남편 김정승 (바리톤) 집사와 함께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박미자 교수. 박교수가 영락교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86년 당시 대우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지휘자였던 윤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솔리스트를 맡게 되면서 부터였다. 이것이 박교수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게 된 전도의 계기가 된다.

"영락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게 노래를 잘하도록 재능을 주신 분이 비로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 전까지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무대는 거의 거절하지 않고 작든 크든 다 섰건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죠. 원래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노래를 아무리 잘 해도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 그 분 마음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노래'로 인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영락교회가 박교수에겐 유일한 교회인 셈이다. 그 뿐 아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난 것도 찬양대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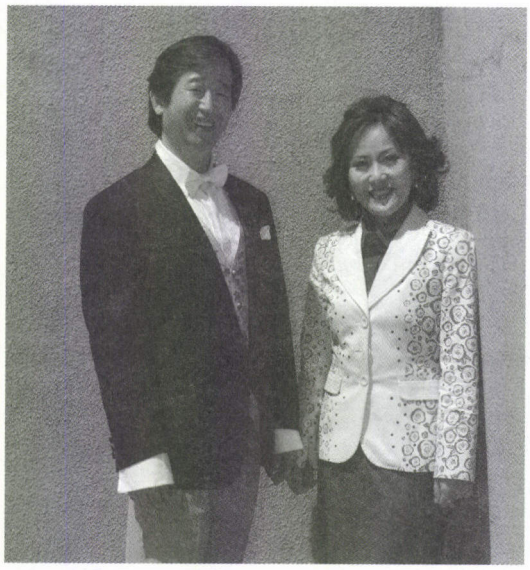
"86년 시온찬양대에서 활동하면서 4부 찬양대 솔리스트로도 가끔 도와 드렸는데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사실 음악하는 남자는 별로 였던 터라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목소리 속의 보석을 발견해 준 주인공이죠. 가능성을 알려줬죠."

그뒤 92년 두 사람은 결혼과 함께 이태리로 유학을 떠난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길 속에 음악 재능을 다졌던 박교수는 그후 남편의 손길을 통해 보석으로 거듭난다. 화려한 테크닉과 질감이 풍부한 음색 그리고 폭넓은 음역이 돋보이며 유학중 이테리 빠르마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한후 싼타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에서 세계적소프라노 레나타스콧토로부터 사사한다.

귀국전 95년 김자경오페라단 초청으로 신창악으로 만든 김동진의 춘향전〈춘향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데뷔한 이후 창을 통해 한국적 혼을 동


오페라 '심청'에서 열연하는 박교수



남편 김정승 집사와 함께

양적 음색으로 담아내는 기술을 터득한 뒤 99년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는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 〈심청역〉에서 박미자가 그 고난도의 곡을 완벽하게 연주했다는 평을 받아 그 이듬해에는 앙콜공연으로 심청을 원어인 독일어로 연주하여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탁월함 아닌 자세"

박미자 교수가 재능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과 최근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터득하게 된 '재능 그릇' 에 대해 설명한다.

"언젠가 전혀 목소리가 얼마동안 나오지 않는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목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나오면 끝이죠.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 내 전부라고 생각되는 목소리가 없다면...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더군요. 그후 생각했죠. 주셨을 때 잘 하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

박미자 교수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꼽았다. 그리고 말을 계속 잇는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재능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재능으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건지.. 하지만 저역시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늘 애씁니다. 그 분께 모든 영광이 드려지도록." 만남



〈취재 및 인터뷰〉
인 미 기자
홍보출판부 취재위원

소개 프로필

SOP 박 미자

* 선화예고, 이화여대 성악과 졸업.
* 이태리 빠르마 국립 음악원 수석 졸업 및 교육자 과정 이수.
* 싼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아 졸업.
* 이화여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현재)
* 스페인 Jaume Aragall 국제 콩쿨1위(1996) * 이태리 Spazio musica *국제콩쿨1위(1998)를 비롯, Bilbao국제콩쿨(1994), G.Spontini국제콩쿨, G.Bizet국제콩쿨(1997), Lauri Volpi국제콩쿨(1998), Zandonai국제콩쿨 입상 및 Zandonai상 수상(1997)과 A.Catalani콩쿨 최고가수상(1995) 수상.
* 2010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여자주역상 수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질서

우리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교회다움이나 신자다움의 빈 공간과 허상을 스스로 자각할 때가 많다.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꼭 같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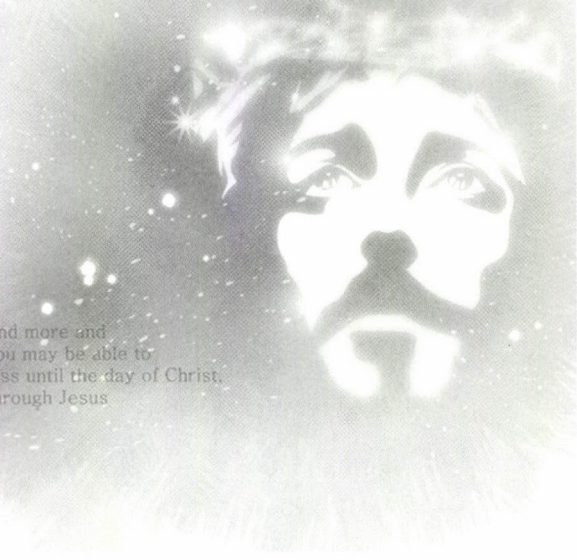


장 진 호 은퇴장로
성남·분당교구, 전 경희대 명예교수

고은 빈들, 때는 날이 이미 저문 시간, 수 천 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둘러 사람들을 해산시켜 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권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0~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나누어 한 50명씩 떼를 지어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해 온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한 5000명(남자만)이나 되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간, 그 큰 무리는 하나의 집단적 군중에서 개별적 개체로 변화되고 있었다. 추상적 대중에서 구체적 개인으로 자신을 확인한 것이다. 남는 자도 없고, 모자라는 자도 없이 모두가 풍족



하게 나누어 먹었다. 그 많은 군중의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혼란이나, 다툼이나, 탐욕이나, 불평등이 〈나와 너와 우리〉를 분리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둠이 짙어 가는 이 빈들 한 가운데서 추상화가 아닌 구체적인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순간들이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질서의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질서의 생생한 교훈을 배우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어 가면서, 지난주일 〈빛의 열매〉라는 설교 말씀과 관련지어 우리의 자화상(自畵像)을 다시 한 번 그려 보며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믿음과 삶이 어긋나는 일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믿음이 있으면 교양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화장실을 정결하게 사용하는 문제나 화장지를 알맞게 풀어 쓰는 문제들이 다 나의 믿음과 상관되는 일임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 교회의 문화수준과 비슷한 다른 기관 건물의 화장실이 우리보다 더 질서 정연함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남자 화장실 바닥에 두꺼운 종이를 깔고 있으나 딴 곳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혼잡한 환경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일,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순서를 기다리는 일, 교회카페라는 데서 차를 마시는 일, 교회 뜰에서 교우들을 만나는 일 등은 모두가 믿는 자들의 일상의 기본 생활과 태도의 나타남인데, 우리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교회다움이나 신자다움의 빈 공간과 허상을 스스로 자각할 때가 많다.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꼭 같이 중요하고, 처세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옛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였는데, 오늘에 와서는 도리어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조명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의 기류가 다원주의 가치를 타고 교회문화 속에 깊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많고, 삶과 질서가 헝클어지고, 윤리의식이 흐려진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성(聖)과 속(俗)을 엄밀히 구별한 초대 선조들의 신앙관에서, 성과 속을 혼합시킨 오늘의 교회문화로 전이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들을 넘어선 교회 본래의 순수한 제3 문화를 빚어 가야할 창조적인 비전이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때를 만난 것이다. 한남

이철신 담임목사님
TV방송 설교(안내)

* CTS 기독교TV

'생명의 말씀'

*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20분

목회자 칼럼

2011년 새학년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스케치



최 정 민 목사
영·유아·유치부
학원선교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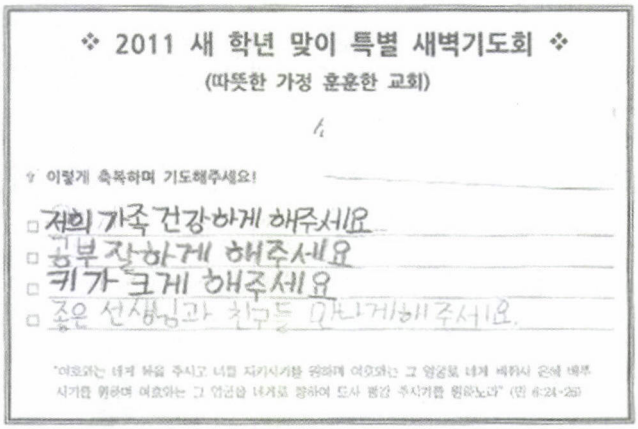
지난 2월 마지막 주에는 새학년 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함으로 새학년을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리 작성해 온 기도카드에는 다양한 기도제목들이 정성껏 적혀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들의 서체가 눈에 띕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바램들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정성과 사랑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녀들 스스로의 신앙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기도카드의 서체들이 점차 자녀들의 서체로 바뀌어갑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제목을 적어옵니다. 때로 삐뚤삐뚤 글자체도 고르지 못하고, 철자법도 완전하지 않지만, 사뭇 진지한 아이들의 기도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학년에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구에서부터, 성적 향상과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간구까지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한 기도제목이 끊이질 않습니다.


❖ 2011 새 학년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

(따뜻한 가정 훈훈한 교회)

4

♀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주세요!

□ 저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 키가 크게 해주세요

□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해주세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에 관한 기도제목이 많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대학입시와 진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입시에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학업 문제나, 진학에 관한 현실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관한 내용과 병행해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길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락의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적 가치관이나 기준에 휘둘리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겨내려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감은 물론 그 안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찾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대 잇기'

대학 · 청년부 정도 되면 진학 외에도 취업과 결혼, 자녀 출산에 관한 기도제목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현실적인 삶의 필요들을 간구하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고 싶은 소망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를 위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번영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정성껏 써 내려진 기도카드들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락의 신앙의 대 잇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부모의 신앙으로 시작된 자녀들의 신앙이 그들의 육적인 성장과 함께, 점차적으로 자녀 자신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먼 길도 마다않고, 피곤함도 마다않고, 학업과 직장도 마다않고 교회로 나아와, 새 학년을 맞이하는 기도의 부모와 자녀가 있음은 영락교회의 희망입니다.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하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뿌리 깊은 신앙의 터전인 영락교회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만남

나의 소중했던 시간들



이 영 옥 전도사
목양부, 서대문·은평교구 담당

1996년 2월, 남한산성 안에 별장 같은 2층 기와건물, 넓은 운동장, 마른 잔디밭 위 앙상한 나뭇가지들, 그 가운데 하얀 콘크리트 건물, 이것이 내가 처음 영락신학교를 보고 느꼈던 인상이다. 삭막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낯설기만 하던 그곳이 지금의 나에겐 가슴 떨리고 설레게 하는 장소이다.

한 학기를 지날 때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던 하나님의 은혜, 그곳의 아름다움을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나의 눈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하던 곳, 금요일 오후면 우리 동기생들과 청소를 마친 후 함께 기도하고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던 곳, 사진도 찍으면서 서로에게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던 소중함을 만끽했던 시간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운 시간들이다.

그때는 몰랐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던 영성의 시간들, 고된 훈련 속에서도 희망으로 꿈을 꾸던 곳, 꽉 짜인 시간표, 교수님들의 제자를 사랑하는 따가운 질책, 수업의 마지막 시간의 교수님의 시 한 편의 낭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듬어 주시는 스승의 사랑,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 부딪치며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노동의 훈련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발견하는 신비로움, 서로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처음의 모습이 3년이 되었을 때는 의젓하게 어른스러워져 잘 다듬어진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물론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 있었다. 훈련할 때는 그 훈련이 싫어서 멀리 도피하고 싶은 적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이겨낸 그 모든 것이 있기에 나에겐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떨리는 가슴으로 본교회(잠실교회)에서의 처음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사역이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싫어 모세와 같이 많은 변명을 하나님께 내놓았던 기억들, 나에게 멸망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자신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사명감을 주

**새로운 일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 올 때면,
또 힘에 겨워 힘들어 할 때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앞서 행하셔서 모든 일을 준비하여 감당하게 하신다고 위로해 주신다.
이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셨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일함에 빠질 때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오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에 임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자상한 아버지 같이, 때론 엄격한 교관 선생님 같이 목사님은 훈련 시키셨다. 훈련할 때는 매우 힘들고 마음 아파서 사역을 그만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회의까지 느낄 때가 있었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견디어 내는 과정들은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바꾸어주는 모습일 것이다.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 깨달았던 것은 많은 것을 참아 주셨고, 잘 훈련시켜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기에 목사님께 진정으로 감사했다.

두 번째 사역지에서의 사역 또한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게 하시고, 땀과 눈물의 기도로 준비시키셔서 여기 영락교회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꿈만 같았다. 신학교 다니면서 바라만 보았던 교회, 여기서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영락교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부라는 귀한 부서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다. 부족한 나를 이곳 영락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선임전도사를 통해 일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손에 일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조금의 쉼이 보인다.

새로운 일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 올 때면, 또 힘에 겨워 힘들어 할 때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앞서 행하셔서 모든 일을 준비하여 감당하게 하신다고 위로해 주신다. 이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 또한 기뻐하시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갚는 것은 아닐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는 사도바울처럼 나 또한 부족한 모습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역이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만남

연재만화

105

사람을 믿지 말라!!



글·그림 조위석 집사
(홍보출판부 전문위원)
(TV-CF 감독)






















주님!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요!
한심하군!
11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 녀석 눈에 보이시겠느냐?
앗차! 제가 깜빡 했나이다
12
여기 네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쳇! 성경이 잖아!
성경
13
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너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14
깜깜한 네 인생길을 인도 하시느니라
말씀
와! 앞길이 환하구나!
15
너는 사람의 말에 따라 춤추지 말고 말씀만 의지하라
죽일놈! 물러가라!
우리의 지도자 여! 환영해요
16
네 인생에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 올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가난
질병
시험
으악! 쓰나미다
17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만을 의지하라!
가난
질병
시험
앗!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
18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려
어서 오세요 도와 드릴 게요!
날좀 도와 주세요!
19
시험과 근심에 빠질 뿐이라! 사람은 네 문제를 해결 못하느니라
에잇! 인생은 이런거야
앗! 이럴수가 배신자!
하하하
20
너는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말씀
21
히 6:14
•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해외선교의 핵 '골든트라이앵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다

-중국 곤명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해외선교사역-



최 현 수 집사
성동·광진교구

중국에는 55개 민족이 있고, 남서부 운남성의 수도 곤명에 27개 소수민족이 있다. 중국 복음화는 세계복음화의 핵심이며 이미 수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먼저 중국에는 가정교회, 삼자교회의 도시교회가 있다.

가정교회, 삼자교회, 도시교회

가정교회는 주거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비밀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며, 발각시 예배 처소가 폐쇄되고, 목회자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이다. 우리 12명의 비전트립팀은 3~4명씩 짝을 지어 몰래 아파트에 입주한 가정교회들과 상가에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 하였다.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는 초대 교회의 모습과 초대 한국 교회를 너무도 빼닮았다.

삼자교회는 자치, 자립, 자전의 삼자, 곧 스스로 운영하며, 스스로 재정을 해결하며,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를 표방하는 중국 공산당, 곧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교회이다. 안타깝게도 삼자교회는 목회자가 설교시 예수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목회자가 설교시 정부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읽는 것에 그친다. 참으로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90세의 담임 장로께서 예수 없이 설교할 때는 조용하던 회중이 주시원 선교사님의 권면의 시간에는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람이 정한 어떠한 규제에도 겉으로는 확인 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예수아이니〈예수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아멘"의 화답으로 이어졌다. 선교사님의 축도 후, 아픈 곳을 만지며 안수기도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십여명씩 네 번의 통성 안수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만은 사도 베드로가 되어, 사도 바울이 되어 그들의 아픈 심령을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남

을 위해, 타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것은 내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

도시교회는 최근에 해외유학파나 해외주재원 출신들이 모여 정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처소이다.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현실

우리의 방문을 즈음하여 선교훈련 3기 수료가 있었고 4기를 준비 중에 있었다. 미얀마에서 온 3명의 자매, 조선족, 한족, 리족 등 이들의 선교훈련은 그 민족의 복음화, 그 종족의 복음화의 시발점이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 나라의 방지일 목사, 그 민족의 한경직 목사님을 떠올렸다. 5만의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린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결코 믿지 않겠다는 사역자 2세들의 반항과 방황은 나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불쌍하고 가슴 아픈 이 어린양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품어 주시고 만져 주시는 SOT (school of tomorrow)사역〈1~12학년제〉은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다.

영어, 수학, 음악 등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다. 이 모든 사역을 우리 자랑스러운 영락교회가 파송한 주시원 선교사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도하고 있었다.

주시원 선교사의 열정

신선한 야성의 영성으로 인도되는 아침/저녁 경건회를 통해 주 선교사님은 강력한 성령의 카리스마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렸다.

하나님의 비전은 운남성의 수도 곤명을 통해 중국과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역인 Golden triangle의 복음화를 원하셨다. 메소포타미아의 수에즈운하에 해당하는 Golden triangle은 땅끝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며, 영적 싸움의 격전장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유월절의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지역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올 여름의 인터넷 해외선교팀 사역을 이곳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을 했다.

Familly vision trip을 오겠다고도 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쩌실지, 3남선교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만남

하나님은 항상 BEST만 주시는 분

– 대학부 동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



박 지 윤
대학부 36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작년 이맘 때 저는 미국에서 막 교환학생 1년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생활도 해 본 적이 없었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조차 처음이었던 제게 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도 마냥 행복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외국인들이 쳐다보면 나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한탄하며 한 발짝 물러서서 자꾸 뒤로 숨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한 달이 지나고 큰 흥미를 못 느끼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찰나, 나의 하나님은 역시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반 친구를 통해 Mason Cru(한국 캠퍼스의 CCC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여기서 알게 된 수 십명의 친구들과 bible study, 찬양 집회, 봉사활동, 여러 신앙 프로그램들, house party 등 매일 매일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 비젼

사실 한국을 떠날 때, 저는 한 번도 영락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여나 미국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잠시도 당신을 놓지 않게끔 친절히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미국 전역에서 3번째로 캠퍼스 선교 CCC활동이 활발한 학교로 보내셨고 저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심 아래 최고의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1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온 것이 2011년을 며칠 앞두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친구들과 단체를 통해 많은 기회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4학년 진학을 앞두고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한 1년 동안 나는 너무 놀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세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남들은 지금 자격증에 각종 시험, 인턴 등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1년을 쉬고 홀로 뒤쳐진 것인가?' 하며, 지난 1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또 잊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 모습에 하나님은 또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한국에 돌아와 6일 정도가 지나고 1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대학부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때 딱 눈에 들어왔던 광고가 바로 '방글라데시' 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저는

남들이 다 쌓는 스펙에 있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저에게 그 땅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무심코 TV를 틀었는데 KBS의 어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대학부에서 갈 사역지 치타공에서 선교하시는 정익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스쳐간 장면들이었지만 거기서 본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그 땅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저를 방글라데시에 보내셨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대학부 단기 선교가 3번째인데 이번에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집중하고 더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롱부족 청년 캠프에 참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또 다른 BEST를 허락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팀은 8박 9일이라는 짧은 일정 가운데 정익모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 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무롱부족이 생각이 납니다. 치타공에서 차로 6시간 이상을 달리고 또 내려서 약 40분 가량 밤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제대로 된 길도 없었지만 그 산 속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한 행복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또 무롱부족 청년 캠프에 참여한 이틀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무롱부족에는 많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청년 몇 명씩 치타공의 한 캠프장에 모여 수련회와 같은 행사



사랑의 집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짝마부족 헌당예배 – 짝마 부족에 5년 만에 예배당이 처음으로 지어져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You are Holy 단체 찬양하는 모습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문명과 단절된 젊은이들, 관습적으로 여성차별로 인해 자유롭게 외치고 뛰놀며 예배하지 못하는 자매들, 무롱부족말로 몇 곡 번역되지 않은 찬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지체들, 하나님을 믿는 데 외부의 핍박과 배척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삶의 유일한 소망인 청년들,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역이 감사의 고백

그 중에 정익모 선교사님께서 아버지로 계시는 고아원인 사랑의 집 친구가 제 손등에 써 준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말로 시편 27:10 이라고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가장 붙드는 말씀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친구를 마지막 날 사랑의 집 사역을 하면서 또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둥켜안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모국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만나는 친구였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친구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나도 너가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고.

이 밖에도 모든 사역이 감사의 고백이었고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고 잘 나오지 않는 깨끗하지 않은 물로 몸을 씻고 긴 이동 시간에 길도 험하여 멀미가 나도,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보라 초등학교와 해오름 중고등학교, 기숙사, 해안가 3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본 어린이들, 봉제 기술학교에서 만난 50% 이상인 이슬람교도인 학생들,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갖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만난 짝마부족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척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짝마부족에는 5년 만에 교회가 지어져 헌당예배를 드리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거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전직은 살인 청부업자

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뒤 잦은 살해 위협까지 이겨내며 그 마을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게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 Before & After를 보란 듯이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스펙을 쌓을 수 있어

미국에서 돌아와서 제가 한 첫 선택이 남들이 다하는 자격증, 시험, 인턴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인턴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바삐 움직였다면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질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땅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미 임재하시고 곧 사용하실 것임을 뜨겁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어떠한 배척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을 놓을 이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8박 9일의 시간, 그리고 이 선교를 준비했던 몇 주의 시간동안 저는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스펙을 쌓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고 돌아온 지금도 그 때 받은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커 매일 매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BEST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세계적인(World-Class) 크리스천이 될 것인지, 세상적인(Worldly) 크리스천이 될 것인지!" 제가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내 꿈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되기 위함임을. 하나님은 제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면 금융권이나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직업 선택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안타까워하시지만 역시나 사랑하시는 땅,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개발도상국을 향한 국제 경제개발협력을 공부하여 세계적인 크리스천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만남



무롱부족 청년캠프 – 무롱부족 각 마을의 청년들이 모인 캠프에서 찬양 및 율동의 시간

'21세기 다변화된 세계 속의 영락교회 선교전략'

-제2남선교회 선교포럼 요약-



송 재 붕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제2남선교회 홍보부장

포럼 배경과 목적

제2남선교회가 지난 2월 22일 개강과 더불어 50주년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선교포럼을 열었다. 회장 정천우 안수집사는 포럼에 앞서 고전적인 선교분야, 곧 국내·해외·북한의 선교분야 중 유독 해외선교 분야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2남선교회의 모습을 보며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해외선교포럼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안교성, 김영동 교수와 우리 교회 선교전담 하충엽 목사가 나섰고, 선교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 동북아 오영민, 몽골 이한상 선교사가 배석했다. 아카데믹한 논쟁보다는 실제적인 정책수립에 초점을 맞춘 이번 포럼의 주제는 '21세기 다변화된 세계 속의 영락교회 선교전략'. 다음은 이 날 있었던 포럼 내용을 취재, 소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21세기 세계선교의 변화와 흐름

몽골 선교사와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를 지낸 바 있어 선교 현장 및 행정 경험이 풍부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역사신학 박사인 안교성 교수는 세계선교 변화가 19세기 이후의 '전통적인 세계선교'에서 20세기 후반 '에큐메니컬 세계선교'로 흐른 뒤 21세기에는 '세계화 속의 세계선교'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세계화 속의 세계선교는 세계화 현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디아스포라 선교, 다종교 선교, 정의와 평화 및 창조질서의 보존과 선교'라는 영역에 힘을 기울여야 함과 아울러, '비서구 중심 선교'로 이행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요청 속에서 고유한 사상과 사역을 개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보는 '선교적 교회론'에 의거하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때 세계선교가 감당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 '개 교회의 선택과 집중, 협력과 일치'는 전방위적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 선교현장 속에서의 한국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이며 장신대 세계선교연구원 원장인 독일 훔볼트대학교 선교신학 박사

김영동 교수는 두 번째 논문 발제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미래세계선교의 당위성을 더하여 주장하며, 제국주의 확장과 맞물려 수행된 서구 중심주의 선교와 한국적 선교신학의 배경과 문제점을 논하였다.

특별히 선구적 선교 패러다임을 주창한 이문장의 한국적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논리 전개와 평가를 병행하였고, 강한 개척자 정신 및 부족한 신학적 이해 등을 지적한 한국선교의 강·약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는 한국선교가 가야할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교, 글로벌 네트워킹, 하나님의 나라 가치 실현, 선택과 집중,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 디아스포라 선교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 통전적인 선교'를 제시하며, 선교의 위대한 기회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선교신학과 실천의 토대인 십자가 신학으로 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 갈 것을 요구하였다.

세계교회,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영락교회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선교신학 박사인 하충엽 목사가 밝힌 영락교회 선교 전략은 그 초점이 시종 북한선교를 향하고 있으며, 다섯 방향의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국제적인 연결망'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세계기독대북단체초청 포럼과 동년 영국에서 열릴 국제평화화해컨퍼런스 및 존 로스 다국 관련 사업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한인 연결망'이다. 기 구축된 미국 나성영락교회와 호주 새순교회에 이어 2011년 캐나다 토론토영락교회와의 연결망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셋째로는 '외적 연결망'이다. 영락교회 선교지를 북방과 동·서남아시아 및 서북 회교선교 벨트로 묶어 확대하고자 한다. 넷째는 '내적 연결 망'이다. 국내 선교자원이 조·중 접경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경직 목사의 세계평화 연결망'이다. 이를 위해 각 대륙별 한반도 평화콘서트의 대도시 공공장소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이 모두 한반도 평화를 향한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토 론

제2남선교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세계화 현상'에 대한 한국교회의 준비 상황과 조치, '다원화 시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학적 인식과 대처,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현황과 인식 등이 점검되었고, 선교 현장에서 보는 영락교회의 선교전략 및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등에 대한 배석 토론자들의 의견 피력이 있었다. 북한선교를 향한 영락교회 세계선교 전략 특성상 특별히 공산권 선교에 힘쓸 것을 안교성 교수로부터 권유 받았다. 사회자는 전체적으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전되는 선교 상황에 대한 점검과 개진이 논문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제2남선교회는 이러한 선교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영락교회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형태로 선교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포럼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어 장내를 흐르는 현악 3중주의 선율과 단상의 토론 데스크를 장식한 아름다운 꽃들은 빈틈없이 진행된 포럼의 긴장을 풀어내고 있었으며 다과를 나누는 리셉션 대화 속에는 만남을 기뻐하는 웃음이 한껏 묻어나고 있었다. 만남

선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전도회가 있었다

- 2011년 여전도회 연합수련회를 앞두고-



최 인 자 권사
용인·화성교구
제1여전도회 중앙회 회장

1898년 평양 널다리골(장대현교회)에서 이신행 여신도를 중심으로 한 여전도회가 한국최초로 창립되었습니다. 1924년 경기노회 승동교회에서는 사경회 중에 현재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창립되었고, 영락교회에서는 1946년 8월 다섯째 주일에 부인전도회가 최초로 창립되어 조직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여전도회는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한경직 목사님 복음화 사역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복음의 황금어장인 군선교는 물론, 농어촌선교, 학원선교, 병원선교까지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영락교회는 현재 4개의 여전도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 61세 이상에서 은퇴 후까지 구성된 제일 맏형격인 제1여전도회, 만 51세부터 만 60세 까지 구성된 제2여전도회, 만 41세부터 만 50세까지 제3여전도회, 40세 이전의 모든 젊은 성도들로 구성된 막내 제4여전도회 등, 나이 별로 참여하여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여전도회는 현재 2,050 여명의 회원과 12개의 소단체가 참여하여 국내선교를 중점으로 매년 농어촌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후원 및 건축, 군선교, 병원전도, 사회교육 등의 선교에 주력하며, 해외 파송선교사님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여전도회는 약 1,200명의 회원들과 2개의 소단체가 참여하여 군선교를 중점으로 군교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봉헌하며, 군 장병 위문과 진중세례식은 물론 각 지회와 함께 통합목사 기도후원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선교로 지속적인 유기농산물 판매봉사를 통해 새누리 공동체를 이루어 자연농법연구단계까지 이르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인 유기농산물 판매를 통해 미자립교회를 돕는 운동에 모델이 되었고, 교우들에게는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며, 친환경 조성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선교로는 재한 태국인 교육과 일터를 관장하여 활발한 선교활동과 해외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샬롬의 집'을 찾아 장애인들과 함께 말씀과 사랑의 후원으로 나눔을 공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원상담선교는 어머니들의 뜨거운 열정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청소년들이 점점 하나님께 뜨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3여전도회는 1,000여명의 회원으로 해외선교가 중점사역이며, 11명의 파송선교사와 9명의 협동선교사를 후원하면서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며, 해외 선교지의 교회와 학교건축지원, 문화원, 선교센터 건축 및 병원건립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선교로는 증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나섬공동체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중도실명자를 위한 산소망선교회도 재정과 봉사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4여전도회는 현재 500여 회원이 모여 국내·외 선교와 북한선교, 노방전도, 쪽방촌 방문 등의 사회선교로 교회 밖의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북한에 이유식 지원 사업을 1, 2, 3여전도회와 함께하고 있으며, 교회 내 설치된 자판기수입은 모두 선교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시작한 '자녀와 함께한 해외 선교지 비전트립' 은 행동하는 해외선교의 초석이 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각종 행사의 안내와 연합수련회, 월드비전 바자회를 통한 콩고의 난민돕기, 에딘버러 100주년 선교대회 지원, 한경직 목사 추모 10주기 국제평화 화해 컨퍼런스에 적극 지원하고 동참한 일 등은 항상 선교사역 중심에는 여전도회가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3월 29일(화) 오전10시 여전도회원들의 영적충전과 성장을 위한 '여전도회연합수련회' 를 위해 봉사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 병들어가는 자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전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영혼이 메말라 갈급해하는 농어촌에 교회를 세워주는 이 귀한 일들은 마른 눈과 얼어붙은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2011년도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가 준비된 것입니다.

지난 수많은 세월동안 한국교회 선교의 중심에는 항상 여성이 있었고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줌의 쌀(聖米)과 꽁꽁 숨겨놓은 금붙이들이 강단에 올려 졌고, 벽장 깊숙이 감추어 놓았던 지전(紙錢)들과 그 정성껏 드려진 헌물과 기도들이 오늘의 선교대국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이처럼 한국 여성도들의 믿음의 행적은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의 중심에는 여전도회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선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인내로 주님의 사역에 협조하는 1, 2, 3, 4여전도회원님들과, 여전도회 사역을 힘써 돕는 여러 소단체 동역자들의 가정과 삶속에 항상 훈훈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여전도회 수련회 〈안내〉-

* 일 시 : 3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본당
* 강 사 : 조인서 목사(지명교회)



초음파와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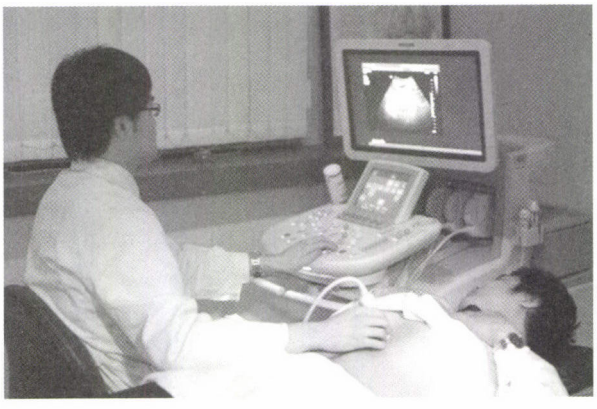


오 영 택 집사
용산교구·의료선교봉사회 의료팀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최근 의학계에서도 병이 진행되기 전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완치와 예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많이 시행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및 식습관이 중요하고, 각자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질병에 걸리 수 있기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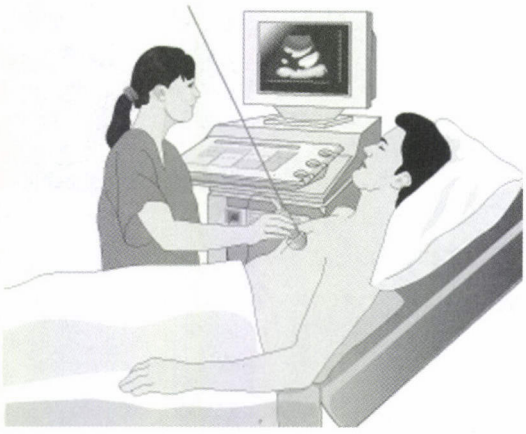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초음파도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의 특징은 진단영역에서는 현재까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에 널리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탐촉자라는 장비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 인체표면이나 내부장기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가지고 영상을 재구성하며, 장기내의 병변의 발견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 초음파가 투과되기 어려운 뼈나 장관계 내의 공기 너머에 있는 구조물들은 관찰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초음파를 이용해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초음파검사로는 갑상선을 비롯한 목 부위 초음파, 간, 신장, 담낭 등을 포함하는 복부초음파, 유방 초음파, 산부인과 영역의 초음파, 관절부위를 주로 관찰하는 근골격계 초음파들이 대표적이며, 기타 혈관이나 심장을 포함한 다른 부위의 초음파 검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거의 없지만, 복부 초음파의 경우는 담낭의 정확한 관찰과 장관계 내의 공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4시간이상 금식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광을 검사하거나 자궁이나 난소 등의 골반 내의 장기를 관찰하기

초음파 탐지기



위해서 방광을 소변으로 충만 시킨 후 검사도 하게 됩니다.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구성되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는 장비의 성능과 시술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주로 관찰하는 장기의 해부학적 형태를 주로 검사하게 되는데 장기의 에코정도와 크기 모양을 기본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국소병변의 유무를 관찰하게 됩니다. 국소병변이 발견된 경우는 병변이 낭성 혹은 고형병변인지 파악하게 되며, 도플러를 이용해서 혈류의 분포는 어떤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병변이 발견된 경우는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정밀검사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소위 CT)이나 자기공명영상(소위 MRI)를 촬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음파를 어느정도 자주 검사하느냐는 병변의 유무나 기존의 질병유무에 따라 다르게 되며, 한 달 간격에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건강 관리와 더불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초음파검진이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남

****

4월 목회력



1일(금)	연합권찰공부
3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젊은이예배 성찬
10일(주일)	새가족 환영회
17일(주일)	종려주일
18일(월)~23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2일(금)	성금요일 심방준비회
24일(주일)	부활주일

"수술자국을 볼 때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김 경 희 권사
성남·분당교구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 484장)

저희 가정은 시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자녀들이 교회에서 직분 받아 봉사하는 걸 가장 기뻐하셨던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작은 헌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소망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자지간 생체부분 간이식

남편은 B형 간염보균자이면서도 사업상 술과 담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5월 간세포암이란 진단을 받고 모두 끊었습니다. 2010년 11월까지 간암 색전시술 11회 고주파열치료 1회를 거쳐 2011년 2월 10일 부자지간 생체부분 간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색전술과 고주파 시술을 받으며 암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시술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 아빠를 위하여 효성 지극한 아들은 어느 날 "아빠! 제 간 떼어드릴 테니까 이식수술하세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하여 간이식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 간이식에 대하여는 그 때까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하나님께 간이식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가족 간의 회의를 통하여 간이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박재학 목사님, 이진영 전도사님(성남분당교구 목회자님), 유상진 목사님(전 교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여전도회 회원들과 저의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전도회원들의 눈물어린 기도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수혜자와 기증자의 이식가능 여부를 위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림 끝에 이식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과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큰 수술을 앞두고 전 '죽음=천국'이라는 더 큰 설정을 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어 주세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만 눈물 흘리게 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크신 능력만이 머물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 낮아지고 온전해지며 거룩해지며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임재함을 깨닫게 해 주세요.'

자나 깨나 화살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목표 앞에 두려움은 일곱 길로 도망하였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저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월 10일 수술 당일

7시에 기증자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수혜자는 8시에 수술실에 가야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는데 6시에 박재학 목사님, 정문식 장로님, 우건제 권사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안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 힘을 얻고 평안 가운데 7시, 8시에 차례대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모든 의료진 손끝을 예민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혜 주시고 시공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치의 조재원 선생님 손을 주님이 잡고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저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형광판의 글을 읽으며 요동치던 마음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잠잠케 되었습니다. 수술은 8~12시간 걸린다고 하여 정장로님 부부와 사위와 함께 늦은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수술하는 긴 시간동안 정장로님 부부와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평안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본이 되는 제직과 위로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긴 기다림이 끝나고 아들이 먼저 8시간 만에 수술실을 나와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큰 효도를 할 줄 몰랐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너의 용기가 사랑으로 아빠를 살리셨구나. 여보~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수술실을 나오기 전부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자 많이 오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모든 중보자들에게 감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중보기도의 힘

아들은 12일 만에 퇴원하였고 남편도 잘 회복되어 준중환자실로 올라와 있던 2월 23일 12시 45분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 셋이서 병원에 갔다 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보호자를 한 시간 내로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을 축하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 3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호흡곤란이 와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은 봄기운으로 완연하였지만 저의 마음은 겨울 한파보다 더 찬 바람이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치실에서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순간 냉정을 찾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걱정 말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필자 김경희 권사의 가족
(왼쪽부터 아들 지훈, 필자, 남편 이국진 집사, 딸 명희)

여러 의료기기들도 힘겨운 소리를 내며 도왔지만 혈압과 맥박 수는 점점 올라갔고 저의 얼굴도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겁니까? 주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치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술할 때 목 큰 혈관 속에 삽관한 관을 뽑으면서 그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공기 색전증) 그렇다고 하면서 그 공기가 뇌로 들어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와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들을 뒤로 하고 저는 치료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시 중환자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밤 딸, 사위 셋이서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어린 모습으로 더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다음 날 24일 중환자실 면회시간 오전 10시 30분, 불안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오가며 남편 침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쪽 유리창 안에서 남편이 앉아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사랑하셨군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평안과 절제의 마음이나…'

감염 때문에 완전무장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김경희 권사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선 기도대로 주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남편은 일반병실에 있습니다. 거부반응, 합병증(담도 협착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편 배에는 수술자국 L자, 아들은 J자형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그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장기 기증이 아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 모든 중보자들과 친구 혜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 기증에 큰 관심을…

이번 일로 인하여 장기기증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은 우엽(60~70%)과 좌엽(30~40%)으로 나뉘는데 기증자는 우엽을 떼주고 좌엽을 남기는데 2~3개월이면 100%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식 가능 장기는 간, 신장, 췌장, 심장, 안구, 폐, 소장 등 많은 장기를 이식 할 수 있지만 기증자가 적어서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가 2~3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장기기증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남

구역모임교재

승리하신 예수님

〈3월 25일〉

- 마음열기 :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회담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 찬송하기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322장)
- 기도하기 :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해 주시옵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태복음 21:23~27

문제 1.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던 그 한 주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난 당하시는 가운데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위 논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 하반절)

문제 2.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4~25절 상반절)

문제 3. 예수님의 대답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6절 하반절, 잠 29:25)

문제 4. 본문 마지막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의도를 깨뜨리시고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이 승리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탄의 세상적인 현혹과 거짓으로 두려움의 참 대상을 혼란케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5.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또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꼭 필요한 결단과 다짐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역모임교재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만찬

〈4월 1일〉

- 마음열기 : 모든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날의 느낌을 나눠봅시다.
- 찬송하기 :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 228장)
- 기도하기 : 성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태복음 26:17~29

문제 1.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7~29절)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사건을 겪으셔야 합니까?

문제 2.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하신 행동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26~28절)

문제 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잔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먹으라', '마시라' 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6~28절)

문제 4.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잔에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속죄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9절의 말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제 5.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와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모임교재

순종의 삶

〈4월 8일〉

- 마음열기 : 주의 일을 부탁 받았을 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찬송하기 : 내 주여 뜻대로 (찬송 549장)
- 기도하기 :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태복음 26:36~46

문제 1.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동산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8절)

문제 2.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신 후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41절)

문제 3. 본문 42절"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에서 '잔' 이 주는 의미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제 4.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2, 44절)

문제 5.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다함께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모임교재

책임감 없는 빌라도!

〈4월 15일〉

- 마음열기 :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건장한 무리들이 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할지 나누어 봅시다.
- 찬송하기 :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282장)
- 기도하기 :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해 주옵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태복음 27:11~26

문제 1.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자 한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1, 13절)

문제 2.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15~17절)

문제 3.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렸습니까? (26절)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

문제 4. 사도신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고난을 받도록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 5. 책임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감있는 자의 모습인지 나누어 봅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안에 믿음 뿌리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 성도 일동 합창 –

새가족 (등록기간 : 2.14~3. 6)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2.14	구자현	4	44	2.20	한수아	13	33	2.27	이재식	7	0
2.14	심소은	4	44	2.20	우도영	13	48	2.27	이윤신	7	0
2.15	엄효은	3	3	2.20	박효정	3	0	2.27	김다솔	80	888
2.15	엄준용	3	3	2.20	김자민	10	32	2.27	정재두	7	0
2.15	정라임	3	49	2.20	이영희	10	32	2.27	김태웅	7	0
2.15	안수현	7	40	2.20	차이안	10	67	2.27	이병길	10	0
2.18	최세훈	3	4	2.20	장선임	4	52	2.27	한주희	10	0
2.18	최명훈	3	4	2.20	김선숙	5	28	2.27	용강철	4	18
2.18	이태주	7	22	2.20	김윤성	14	54	3.6	오현진	90	888
2.19	조항찬	11	28	2.23	배세인	2	63	3.6	박재원	70	888
2.20	서형임	8	0	2.23	배승찬	2	63	3.6	노광일	12	12
2.20	양민호	17	2	2.25	노태민	1	20	3.6	최라윤	6	35
2.20	김경일	2	18	2.25	노아연	1	20	3.6	이현진	70	888
2.20	박지상	70	888	2.27	신해솔	80	888	3.6	신지은	70	888
2.20	곽승주	70	888	2.27	이소미	14	0	3.6	김동은	13	14
2.20	박민아	5	41	2.27	고준석	2	0	3.6	하 린	10	57
2.20	이송자	5	46	2.27	임형준	80	888	3.6	김예나	10	39
2.20	김순희	9	7	2.27	김미영	90	888	3.6	이예성	6	42
2.20	박성필	14	56	2.27	김미나	90	888	3.6	정연화	4	64
2.20	신지수	70	888	2.27	김단오	3	11	3.6	남명활	4	56
2.20	심은혜	90	888	2.27	최승연	80	888	3.6	박석현	8	29

(77은 국제예배, 80·88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축하합니다!

세례·입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신 것을 일평생
변치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정회원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 담임목사 –

세례·입교자 명단 (2011. 3. 6)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입교	고마리	16	50	입교	김보경	13	53	입교	김예은	7	40
입교	권경은	16	36	입교	김세영	9	60	입교	김윤영	8	65
입교	김기은	4	78	입교	김안진	12	48	입교	김정희	11	13
입교	김민진	12	48	입교	김영완	3	13	입교	김주현	11	31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입교	김진예	8	2	세례	김영완	3	13	세례	이현순	14	26
입교	김현규	16	29	세례	김예은	7	40	세례	전기도	10	24
입교	김혜인	16	31	세례	맹주현	4	64	세례	최은영	90	888
입교	문성은	4	31	세례	박상기	2	47	세례	조규창	99	5
입교	박나현	3	5	세례	박상원	15	9	세례	김상학	17	36
입교	박휴선	80	888	세례	신보철	18	17	세례	조영순	17	5
입교	박희태	2	36	세례	윤지영	16	19	세례	김한분	7	59
입교	백세윤	10	21	세례	이성희	2	72	세례	김명순	9	27
입교	변현수	16	22	세례	이순만	14	45	세례	김영순	12	58
입교	봉슬비	4	34	세례	홍종수	9	63	세례	석현정	18	19
입교	설지현	16	56	세례	정유영	1	53	세례	신용하	9	45
입교	성민호	4	1	세례	김지영	2	49	세례	송경호	14	18
입교	손한별	2	17	세례	배진선	6	65	세례	김연창	7	53
입교	송지은	14	4	세례	이선용	4	20	세례	김우득	6	70
입교	안재민	6	53	세례	조은희	17	12	세례	문동수	9	24
입교	안하윤	1	57	세례	김혜진	9	6	세례	이광호	9	27
입교	오소연	1	22	세례	김유진	9	6	세례	손준영	10	57
입교	이길현	1	22	세례	김사라	5	66	세례	함현선	18	19
입교	이민주	9	17	세례	노현수	4	88	세례	김선미	90	888
입교	이새범	1	57	세례	차승환	11	16	세례	윤희선	90	888
입교	이윤아	18	20	세례	조정환	88	888	세례	권정구	11	62
입교	이정아	4	78	세례	박유나	80	888	세례	권경연	3	21
입교	이희승	17	43	세례	고은진	9	20	세례	마종훈	1	25
입교	전지혜	18	21	세례	문지현	9	24	세례	이경희	1	25
입교	정소현	18	13	세례	민연옥	11	55	세례	강기연	5	57
입교	조예진	6	47	세례	전남분	10	48	세례	신헌수	12	58
입교	최승현	10	34	세례	김진택	10	48	세례	정주희	3	49
입교	표에스더	17	14	세례	정소영	10	48	세례	홍판기	4	79
입교	하유진	1	59	세례	황윤길	14	62	세례	최종식	9	1
입교	하지민	5	9	세례	강경화	5	47	세례	손영미	1	51
입교	한성민	12	43	세례	안태용	80	888	세례	박지선	4	51
입교	홍성환	14	27	세례	신혜경	8	16	세례	이진아	90	888
입교	홍지연	18	12	세례	정소희	14	62	세례	이상욱	80	888
입교	정현석	4	44	세례	전혜정	9	5	세례	이재현	80	888
입교	최수진	80	888	세례	김정숙	10	65	세례	이은지	80	888
입교	남승균	2	17	세례	김호준	10	55	세례	고유정	70	888
입교	홍종팔	1	34	세례	홍설미	1	0	세례	전우성	90	888
입교	조정은	1	34	세례	김대훈	7	14	세례	문소정	70	888
입교	김희수	5	44	세례	신민철	6	35	세례	정주이	9	20
입교	김성수	9	60	세례	이선영	7	52	세례	홍기욱	80	888
입교	염진욱	11	66	세례	홍성욱	2	45	세례	정슬기	70	888
입교	송이래	70	888	세례	이정화	11	50				
세례	고찬희	7	27	세례	이주희	10	55				

이철신 담임목사님 '월드비전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상보)

초대 한경직 목사, 2대 정진경 목사, 3대 김선도 목사에 이어 국제구호개발기구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철신 담임목사의 월드비전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월드비전 이사장·이사 이·취임식)가 지난 2월 23일(수) 오전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1부 수요기도회 시간인 10시 30분에 시작된 감사예배에는 관계 인사들은 물론 많은 취재진과 성도들이 성황을 이루어 본당 1,2층을 꽉 채운 가운데, 우리 교회 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함께했다.

이정익 목사(월드비전이사, 신촌성결교회담임)의 인도로 송자 장로(월드비전이사, 명지학원이사장)의 기도 후 김진호 목사(월드비전이사, 도봉교회원로)의 말씀이 있었으며, 이·취임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 공로패와 취임패가 수여되었다.

김진호 목사는 누가복음 10장 34~37절 말씀을 인용,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란 주제로 "인간으로서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일은 죄악이라 했다"고 전제한 후,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강도만난 이웃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며,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다' 는 한 신학자의 말을 소개한 후, "한국 크리스천들이 선한 일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21년간 이사와 9년간의 이사장을 역임한 김선도 목사(3대 이사장, 광림교회 원로)는 이임사에서 영락교회에 뿌리를 둔 세계 월드비전과, 한국 월드비전의 발전상을 소개한 후, 월드비전의 종갓집인 영락교회에서, 또 한경직 목사에 이어 이철신 목사가 이사장에 취임하게 됨은 큰 의미가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단에 오른 이철신 목사는 취임사에서 이제까지 월드비전 코리아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세계 100여 참여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기여하는 국가로 부흥시킨 전임 이사진과 월드비전 직원들의 사역에 감사를 표하고, "월드비전의 정체성과 목표를 잘 따름으로써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억눌린 북한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하고, "이번에 함께 이사로 세운 김성주 이사님(성주그룹회장), 정무성 이사님(숭실대교수), 김학준 이사님(전 동아일보회장)이 활발하게 월드비전과 함께 활동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인용, "생명을 주는 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은 박종삼 월드비전 회장으로부터 취임패를 받고 있는 이철신 담임목사〉

【정리: 신영삼 집사, 사진: 원종석 집사】

광복회 회장 김영일 성도님 별세



원로 애국지사로서 광복회 회장을 맡고 계시던 김영일 성도님(사진, 성남 · 분당교구)이 지난 2월 28일 86세를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김훈 집사의 부친인 김영일 성도님은 1925년 9월 평북 정주에서 출생하여 1943년 오산중학교 학생의 몸으로 중국으로 망명,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한 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청년 광복군으로 활약하셨다.

1946년 망명지에서 귀국한 김 성도님은 194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사단 작전참모를 시작으로 육군대학 교관, 백골부대 연대장, 파월 십자성부대 사령관, 육군 보병사단장, 육군대학 총장등 주요 보직을 거쳐 1979년 육군소장으로 예편한 후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하셨고, 1995년 광복군동지회장에 이어 1998년에는 광복회 부회장으로, 2008년 6월에는 제18대 광복회장에 당선되어 영면하실 때까지 오직 국가를 위해 일해 오셨다.

남달리 청렴하고 청빈한 분으로 알려진 김 성도님은 군에 몸을 담고도 국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등 지적 함양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셨으며, 그간의 공로로 은성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미동성훈장, 미육군공로훈장과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을 수여받는 등 많은 국가적 공훈을 쌓아오셨다.

김 성도님의 영결식은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여의도소재 광복회관에서 사회장(사진)으로 치러져, 많은 정 · 관계 인사들과 광복회 임 · 회원 등이 참석한가운데 광복회 의전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날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졌다. 유족으로 부인 신금화 은퇴권사와, 1남 3녀 밑으로 8명의 손자(녀)를 두셨다.

【정리 : 신영삼 집사】

금요정오예배(직장인예배) "금요일 점심은 주님과 함께"

금요정오예배에 직장인 및 영락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1)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10분~12시40분 , 선교관

2) 문의 : 봉사관3층 선교부 (전도부 선한전도팀 ☎ 2280-0141)

'안보' 걱정하며 사적들을 돌아본

제1남선교회 춘계수련회



제1남선교회 중앙회(회장 : 황인수 장로)의 춘계수련회가 지난 3월 11일(금) 북한과 인접해 있는 강화도 일대를 돌아보며 진행되었다.

대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의식이 요구되는 때라 수련회 컨셉을 '국가 안보'에 맞춰 진행한 이번 수련회에는 모두 129명이 참여하여 수없는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우며 온갖 수난을 당해야 했던 섬 강화도를 찾았다.

111년 전 고요한 초대 주교가 축성한 건물로, 당시 궁궐을 짓던 도편수가 건축을 맡아 한옥 형태로서 구원의 방주모양으로 지었다고 전해지는 강화교회(성공회 소속)와, 760년 전 몽고의 침입을 받아 고려왕조가 피난하여 항쟁했던 고려궁지, 1781년 왕실관계 서적 1천여 권을 보관했으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침략을 받아 약탈당하는 불행을 겪은 외규장각을 돌아보았다.

이어 북한주민들의 삶까지 바라볼 수 있는 평화전망대와 강화 53개 돈대 중 최남단에 위치한 분오리돈대 등을 돌아보며 강대국들의 힘에 맞서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역사 기행을 통한 안보의식 고취의 기회를 가졌다.

(사진은 강화교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참가자 일행- 제1남선교회 제공)

【정리 : 신영삼 집사】

사랑부 봄맞이 성경학교-"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해마다 각급 학교의 봄방학이 시작되면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봄맞이 성경학교를 열어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수련회를 해오고 있다.

사랑부의 봄맞이 성경학교도 지난 2월 26(토) 오전 10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27일(주)까지 진행되었다.

1부 여는 예배는 박성희 전도사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사랑을 배우자고 말씀을 전한 후 함승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공과공부 중에는 섬김의 상징인 세족식을 가졌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 사랑이 가득함을 느끼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오후에는 인사동 나들이 행사를 하면서 함지박에서 목걸이공예 등,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특성상 손공예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키워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취재 : 송재붕 집사】

'교사선교회' 모임 〈안내〉

본 교회 선교부 학원선교팀 산하 현직교사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매주일 오후 1시~2시
* 장　　소 : 50주년기념관 702호
* 참여대상 : 초·중·고·대학 현직교사 및 교직원 (행정직)
* 내　　용 :
  1) 성경공부 : 강사(고재길 목사 : 장신대 교수), 매월 1~3째주
  2) 4째주 : 기도 나눔 및 간증(개인 기도제목 나누기, 학원 현장에서의 선교간증)
  3) 5째주 : 교사에게 필요한 소양교육(유명강사 초청)
* 문　　의 : 교사선교회 회　　장 김정희 권사(010-3190-4693)
  지도권사 우건제 권사(010-6342-1701)

이철신 담임목사님, 음향기기 지원한 김형준 세기전자 대표에 감사패 증정



이철신 담임목사님(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월 20일 오전 담임목사 실에서 교회 스피커 등 노후 음향기기 교체에 적극 지원해준 김형준 세기전자 대표 부부(왼쪽)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형준 사장은 우리 교회 종로교구 김태관 성도(세기전자 회장)의 장남이다. 사진 오른쪽은 행정처장 박명하 장로.

【사진 : 황완주 집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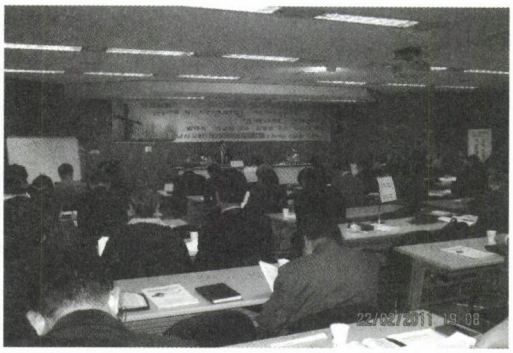
제2남선교회 주최 '세계선교대학' 개강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실시하는 세계선교대학이 2남선교회(회장:정천우 안수집사) 주관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12주 과정의 교육일정을 마치면 수료증과 함께 선교지도자 교육과정, 평신도지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한다.

본 세계선교대학은 2남선교회 회원 및 선교에 관심을 가진 모든 교우들에게 개방되어 교육의 폭을 넓혀 선교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첫 날인 3월 8일에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인 신방현 목사의 '총회 세계선교정책과 전략' 이란 과목으로 시작되어 12주의 대단원 교육은 시작되고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 밖에 선교부 주관의 선교세계관학교



〈Mission Perspectives 3. 8(화)~5.31(화)〉와 선교현장영어〈Mission Field English 3.5(토)~6.4(토)〉가 각각 진행 중에 있다.

'선교하는 교회' 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이 때, 관심 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접수 및 문의 ☎02-2280-0143〉

【취재 : 송재붕 집사】

영락사회복지재단 후원자모집 캠페인

"나눔 충전, 기분 UP!"

≪나눔 주인공 300!, 내 아이에게 나눔의 감동을! 친구와 함께 1+1의 나눔!≫

* 일시 : 2010. 4. 10(주일) 오전8시 ~ 오후4시
* 장소 : 영락교회 베다니광장, 봉사관 앞
* 내용 : 신규후원자 모집, 홍보부스 설치, 시설 및 관련기관 공연, 이벤트 등



1. 신규후원자모집

1) 목 표 : 나눔 주인공 300!
2) 대 상 : 나눔의 감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환영!
3) 후원형태 : 자동이체, CMS 가입, 저금통 후원 등

2. 이벤트행사

1) 모금함 설치 : 누구나 자유롭게 후원 할 수 있도록 모금함 설치(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
2) 즉석 사진 : 신규 후원자와 재 가입자에게 즉석사진을 찍어 현장에서 드립니다!
3) 시설사진 컨테스트 :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설에서의 다양한 활동 사진이 전시될 예정. 그 중 제일 예쁘고 멋진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4) 사랑의 열매 : 행사 당일 가입한 후원자의 이름이 달린 풍성한 열매 나무
5) 공연 행사 : 2 ~ 4부 예배 후 베다니광장에서 볼거리 행사가 진행됩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정기 회원	207명	240명	나눔 주인공 300명!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감동의 잔치 2011년 나눔 캠페인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비정기회원	15명	7명	
총 인원	222명	247명	
월 약정금액	(신규후원자수 147명) 5,423,000원 + α	(신규후원자수 160명) 5,939,000원 + α	

6) 사탕, 풍선, 저금통 배포

교회 음악과 '영락창작작곡가회' 모임 안내



1. 음악의 힘 :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은 우주의 언어로서 지구상의 각 민족에게뿐 아니라 은하계 넘어 미지의 별에까지 감동과 의미를 전달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의 경배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찬송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감사, 평안, 위로, 경배의 표현이며, 보혈의 찬송은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2. 교회음악과 대중음악 : 예배 시 찬양대의 찬양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뵈옵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향도(嚮導)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은 육체적 쾌락과 음란 지향적이며 땅에 속한 것입니다만, 하늘에 속한 교회음악은 영적이며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합니다.

현대인은 대중문화 가운데서 대중음악의 영향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음악적 취향은 대중음악적입니다. 이것을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신학적 의미가 있으나, 이런 대중음악의 양식을 예배음악으로 사용 하는 것은 교회 교육적 의미에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락창작작곡가회≫ 모임 :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교회음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인 중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그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모여 영락 창작 작곡가회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회원은 17명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 1시에 음악부 사무실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모일 때마다 새로운 창작곡 한 곡씩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시인성도들이 창작곡에 붙일 가사로 신앙고백 찬송 시들을 많이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조직은 현재 자문위원으로 음악부 부 · 차장, 지도위원 홍권옥 권사, 장세완 집사. 총무 김진수 집사. 서기 김혜인 선생과 11명의 회원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Daum에서 '영락작곡가모임' 을 치면 카페 홈페이지에서 활동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락창작작곡가회〉 모임이 한국의 교회음악을 거룩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작곡가 모임 문의 ;

음악부 2280 - 0153, 010-7205-5135

【제공 : 이종오 안수집사(음악부 차장)】

이철신 담임목사님, KBS 기독신우회 초청받아 말씀전해



이철신 담임목사님이 지난 3월 11일(금) 낮 12시 KBS기독신우회(회장 : 조경범)의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했다.

KBS신우회가 '창립34주년 감사예배'로 준비하여 KBS어린이합창단 연습실에서 가진 이날 예배는, 신우회 회장 조경범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부회장 김영미 집사(영락교회)의 기도 후 단에 선 이철신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21~28절을 인용, '제자의 삶'이란 주제의 말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자를 싫어하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진실 된 제자의 삶이 없이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세상 유행인 효율성도 버리고, 오직 순전한 헌신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회복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말씀을 전하는 이철신 담임목사)

【정리 : 신영삼 집사】

영락, 대광, 보성 등 학원 교목간담회 개최



선교부 학원선교팀(팀장: 나선환 권사)이 주최한 영락, 대광, 보성 학원 교목간담회가 지난 3월 9일(수) 낮 12시 명동 로얄호텔 세미나 홀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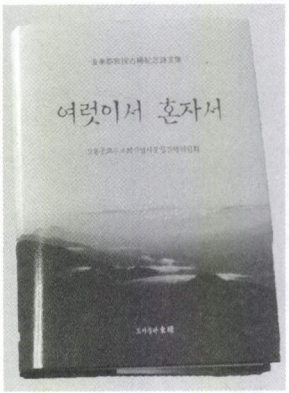
오찬을 겸하여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하충엽 목사(선교전담)와 강신돈 장로(선교부장)를 비롯하여 학원선교관련 목회자, 임·역원, 그리고 각 학교 장, 교목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하여 먼저 교목들로부터 각 학교의 현장 사역 보고를 들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1시간에 걸친 학원선교 전략 토의시간을 통하여- 1)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신앙교육, 2)학교와 교회학교의 협력방안, 3)기독교학교 발전방안 등 3개 주제를 놓고 순서대로 토의하면서 학원 선교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리 : 신영삼 집사/ 사진: 원종석 집사】

새 책 / 김봉군 안수집사 고희기념시문집

'여럿이서 혼자서'



문학평론가이며 가톨릭대학 명예교수인 김봉군 안수집사(홍보출판부 차장)의 고희기념 시문집 '여럿이서 혼자서'가 발간되었다.

김 집사가 2007년 가톨릭대학을 정년 은퇴하게 되자 '김봉군교수 고희기념시문집간행위원회'로 뜻을 모은 제자들에 의해 출간된 이 책은, 김 집사의 선후배, 동료, 제자 등 그간 인연을 맺어온 150여명의 시와 산문들이 인품, 학문, 교육, 신앙 · 봉사 분야로 나누어 실려 있고, 이어 김 집사가 쓴 9편의 시와 사랑, 그리고 수편의 새로운 문학평론들을 합하여 총 650쪽으로 편집되어 있다.

다매체시대 문학의 지평열기, 문장기술론, 한국현대작가론 등 다수의 주요 서적들과 고등학교 교과서, 에세이집 등을 펴낸 김 집사는 특히 기독교문학에 깊이 있는 연구자로서, 본 만남지 2000년 7월호부터 32회에 걸쳐 '기독교문학이야기'를 집필하여 연재한 바 있다. 〈도서출판 동경(東暻) 간/신국판 650페이지〉

【정리 : 신영삼 집사】

자원봉사부 분실물 안내

1) 내용 : 성도님들의 귀중한 분실물이 자원봉사부 분실물관리팀에 보관되어 있사오니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6개월 경과시 임의 처분합니다)

2) 위치 : 봉사관1층 분실물 안내 (☎ 2280-0127 주일만)

◇ 바로잡습니다.

* 본 만남지 3월호 64쪽 상단 '보직'란 사진 소개 중 당회 서기 '홍고봉 장로'는 '황고봉 장로(사진)'의 오기였기에 황 장로님께 사과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 2011년도 교회요람 30쪽 하단, '은퇴전도사' 사진 게재 중 최신은 은퇴전도사님(사진)의 사진이 누락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세 번째 열린 '영락미술협회전' 성황리에 마쳐

우리 교회 미술인들이 손을 모아 준비한 3번째 '영락미술협회전' 이 지난 2월 23일(수)부터 3월 1일(화)까지 종로구 인사동 소재 '라메르 갤러리' 에서 열렸다.

개막일인 2월 23일 오후 5시 많은 교인들과 미술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개회예배에서 김상혁 목사는 시편 133편 말씀을 인용, '연합하여 아름다운 창조적 활동과 미술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밀함 '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선교부 문화선교팀 산하 영락미술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늘 친근히 만나는 31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이며, 전시된 작품은 그림, 서예, 도예 등 약 70여점



이다.

새 봄을 맞이하여 작가들이 영혼을 담아 출품한 전시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도 되었다.

【취재 : 정은희 집사】

윤여옥 은퇴안수집사, 서울노회 남선교회서 모범 실버상 수상



윤여옥 은퇴안수집사(강동·송파교구, 74세, 사진)가 지난 2월 20일 서울노회 남선교회가 주는 모범상을 수상했다.

서울노회 남선교회가 매년 정기총회 시 선발 시상하는 이 상은 그간 개 교회는 물론, 노회 남선교회 활성화와 연합운동에 앞장서온 회원을 선발하여 주는 상으로, 윤여옥 은퇴집사는 비록 교회 제직은 은퇴했으나 교회 남선교회는 물론 노회 회원으로도 적극 참여하여 남선교회 연합운동에 힘써온 공로로 '모범상 실버상' 을 수상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노회 남선교회장 류근성 장로로부터 상을 받은 후 포즈를 취한 윤여옥 은퇴안수집사(오른쪽).

토요음악회

제5회 조이플시너즈(Joyful Sinners) 정기연주회 〈안내〉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 지 휘 : 장세완
* 피아노 : 석조아
* 찬조출연 : Hosanna String Ensemble

◇ 일시 : 4월 9일(토) 오후 6:30
◇ 영락교회 '베다니 홀'
◇ **주 최 : 영락교회 음악부**
◇ **주 관 : 영락남성합창단, Joyful Sinners**

2011 부활절 음악회

GLORIA

◆ 일 시 : 2011년 4월 24일 오후 5시 ◆ 장 소 : 영락교회 '베다니 홀'

* 지휘 – 장세완 * 반주 – 김 진, 호산나 오케스트라 * 합창 – 호산나찬양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올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IMANT RAMINSH 작곡의
"GLORIA"와 계현찬 작곡의 "다섯 개의 기쁨의 노래" 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모두들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 주최 _ 영락교회 음악부 **◇ 주관 _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만남지 4월호 주제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한 목사님의 11주기」, 「구제역 파동」 등이 선정되었다. 그간 회자되고 있는 한기총 금권 선거, 이슬람채권 발행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크라이스트처치와 일본의 지진 발생, 구제역에 따른 생태선교의 필요성, 중동의 쟈스민으로 시작된 민주화 등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수난은 이 모든 고난들 위에 계시고, 고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묵상할 때 생기는 부활의 영은 우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죽음을 살아내는 부활, 이는 신앙의 신비이다.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만남지의 제작이 진행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위로와 의미를 찾기 쉽지 않다. 주님의 수난을 앞에 두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만남지 4월호의 출산의 고통에는 교정, 취재 등을 담당하신 아름다운 분들의 헌신이 있다.

이번에는 이미경 실행위원이 동참하였다. 한목사님의 실제 삶을 취재한다는 중압감과 나이가 많으신 강제옹 집사를 인터뷰하고, 녹취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이를 수락하고 옥고를 내어놓았다. 지면을 허비하지 않을까 하는 유다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것에 위축되거나 비판의 눈초리에 눌리기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한 이 헌신은 만남지와 함께 그 향내가 드러날 것이다.

강제옹 집사 부부께 "함께 살자"고 초대하신 한 목사님, 그리고 함께 기거하도록 하셨던 목사님의 인격이 그리워진다. 「예수님과 함께 살자. 함께 먹자. 그리고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훈훈한 교회가 아닐까? 인터뷰를 허락하시고, 한목사님 가족사진을 보내주신 강제옹 집사 부부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홍보출판부 실행위원이면 누구든지 글을 기고하거나, 취재원을 발굴, 그리고 취재했으면 한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표현되는 헌신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함께 하길 바란다.

영락 피플은 신설 코너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락 성도들이 취재 대상이다. 인미 작가가 시온찬양대 솔리스트인 박미자 교수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박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큰 상인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여자주역상을 수상했고, 교회 음악부 측에서도 관련 소식을 만남지에 소개해주길 부탁해왔다.

특집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정영근 교수님, 구제역에 대하여 필자를 섭외해주신 박일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만남지 5월호 특집 주제는 「가정과 교회」이다. 황홀한 봄을 맞이하기에는 일본 대지진의 아픔이 무척 크다. 이 슬픔이 주님의 고난 안에서 발견되고, 생명의 주께서 지구촌에 함께 하시길 빈다. 또한 읽히는 만남지가 되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편집위원장 김 형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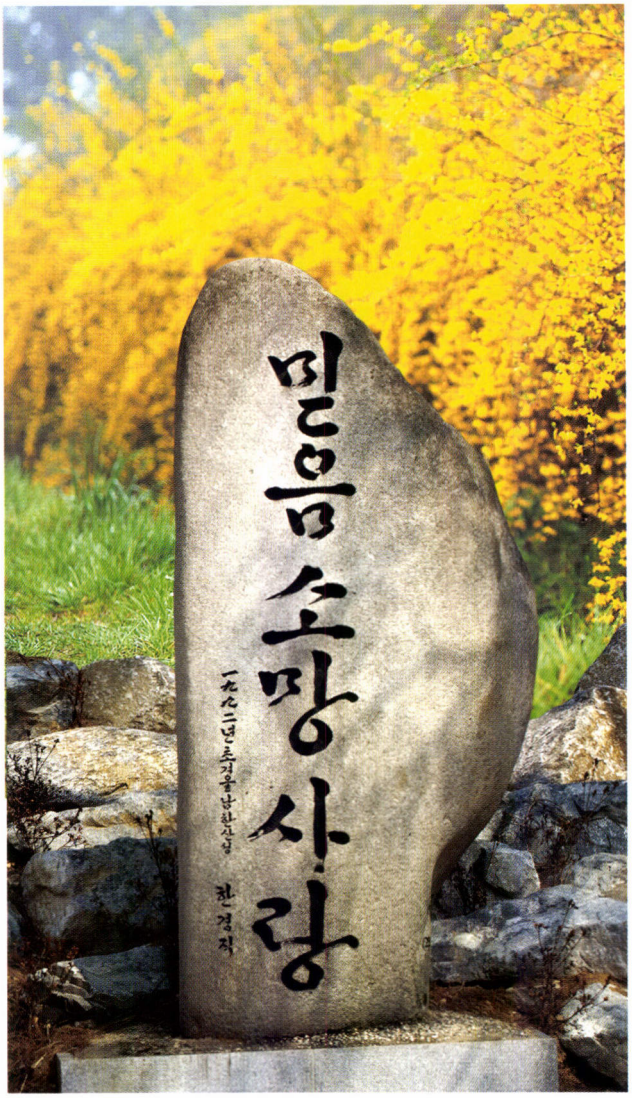
한경직 목사님 11주기(周忌)



한경직 목사님 내외분과 두 자녀 (뒷줄-아들 혜원 목사, 딸 순희 사모)

사진의 시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장자(강제옹 은퇴집사)에 의하면 한 목사님의 회갑 연세쯤인 1960년대 초로 추측된다.〈편집자 주〉

영 락 화 랑



한경직 목사님의 필훈 '믿음 소망 사랑'

영락동산 관리실 입구에 세워져있는 이 필훈은
1992년 초겨울, 영락동산 완공 감사예배를 앞두고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것으로, 당시 한 목사님의 떨리는 손을
고상우 장로님이 부추겨 드려 쓰신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 김한기 작가〉